무가 바리공주의 심리학적 상징성 :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김 영 희**

국문초록

바리공주는 부모인 왕과 왕비의 일곱 번째 딸로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지만,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약을 얻기 위해 홀로 저승에 간다. 그리고 험난한 시련을 통하여 재생의 불사약을 가져와 죽은 부모를 살리고 신격을 획득함으로써 만신의 왕이 되는 무속신화이다.

무당의 조상인 바리공주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을 견디며 죽고, 새롭게 탄생해야 하는 무당의 필수적인 입무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바리공주가 신성을 획득하여 무조의 신이 되는 그 이야기속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 원초적 상인 신화소를 발견할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 죽음, 재생의 과정을 거치고 만신의 왕이 된 바리공주는 영웅신화에서 볼 수 있는 개성화 과정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리공주는 부모의 병을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였다. 죽은 부모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약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리공주가 일상의 하찮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며 견딘 자기희생적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비이다. 바리공주는 자아의 입장보다 넓은 자기(Self)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였다.

저승에서의 고행 속에서 치료자의 조건을 갖춘 바리공주는 영혼의 인도자이며, 치유자원형인 것이다. 이렇게 바리공주의 고통을 넘어선 신성한 치유의 힘

접수일 : 2021년 4월 3일 / 심사완료 : 2021년 5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17일

*본 논문에 인용된 꿈들은 피분석자들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은 한국인의 심성 속에 내재한 자기원형, 즉 치유자의 어떤 신적인 상을 깨우쳐 주는 상징적 힘인 것이다.

중심 단어 : 바리공주 · 개성화과정 · 자기원형 · 치유자원형.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연구자의 꿈과 환상을 제시하였다. 의식에서 바리공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탐색하는 동안, 그 탐색은 나의 무의식을 자극하였으며 의식에서 논문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 무의식은 나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다. 같은 융학파이여도, 연구자의 유형에 따라 해석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무의식의 자기원형, 객체정신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즉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며 본 논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무가 바리공주는 여성, 남성의 이야기보다는 양성적인 상징으로 “버림받은 여성성”의 이야기이므로, 바리공주를 구체적인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으로 마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여성성”은 여성, 남성 모두에게 있으므로, 무가 바리공주는 “여성성의 자기실현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한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원형, 바리공주를 만나고자 한다.

교육 분석을 시작한지 2년 뒤, 나는 “바리공주”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

> **<2000. 4. 26>**
>
> 나는 바리공주의 구절들을 읊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었다. 나는 이야기들이 주저리 주저리 나오는 것이 신기했고, 놀라왔다. 나는 이 소리를 누가 내는 것일까 나에게 물었다.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야” 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순간 박수무당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으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 남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북청색의 궁중옷(허준의 복장과 유사)을 입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단호하고 조금 무뚝뚝하게 생겼으며, 얼굴이 거무스름한 건강한 모습이었다. 목소리만큼 부드럽게 생기지는 않았다.

허준의 복장과 유사한 조선시대의 의관 옷을 입은 무의식의 아니무스, 그 인격의 특성은 단호하고, 무뚝뚝하고, 약간은 거칠기도 하지만, 건강하다. 나는

이러한 특성들이 치료자가 되기 위한 힘든 수련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이 아니무스는 치유자의 원형으로 영혼의 인도자(psychopompos)이며, 내 안의 새로운 신화가 나왔음을 알게 되었다.

융에 의하면 "신화는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삶의 계시라고 하였다. 우리가 신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신의 말로서 말하는 것, 신의 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1] 개개인에 따라 바리공주는 꿈을 통해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 신화소의 공통점은 치유와 관련이 있다.

일곱 번째의 딸로 태어난 바리공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인 왕과 왕비로부터 버림 받지만,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약을 얻기 위해 홀로 저승에 간다. 그리고 험난한 시련을 통하여 재생의 영약을 가져와 죽은 부모를 살리고 신격을 획득함으로서 만신(萬神)의 王이 된다. 무당의 조상인 바리공주의 삶에는 시련과 고통을 견디며, 죽고, 새롭게 탄생해야 하는 무당의 필수적인 입무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부영[2]은 한국 무속에서 이 과정은 시련을 겪지만 극복하여 새사람이 된 자만이 치료자의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즉 스스로 고통을 겪고 새로워짐이 없이 남을 도울 수 없다는 평범하면서도 본질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음이다. 이러한 신화는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 속에 누구나 깊이 간직되고 있는 원형에서 나온 것이며 인간 무의식의 원초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리공주는 영혼의 인도자, 치유자원형이 아닐까?

바리공주가 가야 했던 전체성을 향한 구불구불한 길은, 오로지 신의 의지에 의해 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오솔길이다.[3] 전체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신화인 것이다. 굿에서 그 신화를 노래하는 무당은 무의식적으로 개개인의 무의식에 영향을 주어 치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4] 그 치유기능이 작용할 때 무가 바리공주는 죽은 자를 위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산 자를 위한 노래

1)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이부영 역)(2016) : ≪C.G.융 우리시대 그의 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p207.
2) 이부영(2012b)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파주, pp651-652.
3)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287.
4) 이부영(2012b) : 위의 책, p652.

로 변환될 수 있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부영[5]은 1970년「최신의학」의 "사령(死靈)의 무속적 치료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특히 분석적 정신요법과 관련하여"에서 처음으로 바리공주를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소개하였다. 경기도 지방의 진오귀굿의 초혼(招魂), 넋두리, 바리공주, 열포(裂布), 넋전, 소각 등은 일종의 정신요법과 같은 심리과정이며 더 나가서 인간공유의 치병과정의 원형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나미[6]는 "융,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의 저서에서 바리공주 삶과 죽음의 비의라는 관점에서 바리공주가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개성화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유경[7]은 "한국 민담의 여성상"에서 바리공주가 부성상에 의해 고난을 겪지만 병든 부모를 구하게 되면서 부성콤플렉스를 치유하는 그 과정을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리공주 연구와 연구자의 무의식적 반응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연구자의 무의식적 체험을 함께 쓴 논문으로 바리공주가 만신의 인위왕(人爲王), 신성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학적 상징성을 확충하고, 바리공주의 신화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치유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대상무가 바리공주와 그유화

1. 무가 바리공주

"무가(巫歌)바리공주"는 무당이 죽은 사람의 혼을 천도해주는 깊은 슬픔이 담겨있는,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그 노래 속에는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저승에서 가져온 영약으로 죽은 부모를 살리고, 신격을 획득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본 논문에서는 1937년, 일본인 인류학자들인 아키바 다카시와 아카마츠 지

5) 이부영(1970) : "사령의 무속적 치유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특히 분석적 정신요법과 관련하여-", ≪최신의학≫, Vol. 13, No. 1, pp92-93.
6) 이나미(2010) : ≪융,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서울, pp126-135.
7) 이유경(2010) : ≪한국 민담의 여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139.

죠에 의해 처음으로 채록되어 보고된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8] 상권에 수록된 무조 전설(巫祖傳說) 바리공쥬, 경성무녀 배경재 구전(京城巫女 裴敬載 口傳)을 대상 무가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바리공쥬"를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1930년대의 조선어가 익숙치 않았지만, 내면의 움직임이 일어나며 감정이 살아나곤 했다. 그때 "바리공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로 옮기기로 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조현설 교수님을 소개받았고 교수님은 "바리공쥬"를 현대어로 옮기는 것을 쾌히 승낙해 주시었다.

2. 유화와의 비교

영혼의 인도자인 바리데기는 바리공주, 무조전설, 칠공주, 오구풀이 등의 다른 명칭이 있으며, 죽은 사람의 혼령을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진오기 굿(중부지방), 오구 굿(영남지방), 씨끔 굿(호남지방), 망묵이 굿(관북지방) 등에서[9] 불려지는 대표적인 서사무가이다.

김진영, 홍태한[10]은 "무가 바리공주의 이본들을 분류하여 북한지역본, 중서부지역본(서울, 인천, 경기, 충청도지역), 동해안 경상도 지역본, 전라도 지역본으로 구별했다. 또한 바리공주의 이본별 변이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 내용들은 어느 지역의 바리공주에서나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였다".[11]

① 바리공주 부모가 혼인을 한다.
② 바리공주 부모가 연이어 딸을 낳는다.
③ 일곱번째도 공주를 낳는다.
④ 바리공주가 버림을 받는다.
⑤ 바리공주 부모가 병에 걸린다.
⑥ 병에 필요한 약이 약수임을 알게 된다.
⑦ 바리공주가 부모를 만난다.
⑧ 여섯 딸에게 부탁하나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한다.

8) 아키바 다카시와 아카마츠 지죠(최석영 해제)(2008) : 한국 근대 민속 · 인류학 자료 대계 ≪조선 무속의 연구 상권≫, 민속원, 서울, p1.
9) 서대석(2002) :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서울, p271.
10) 김진영, 홍태한(1997) :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 p42.
11) 김진영, 홍태한(1997) : 앞의 책, pp38-39.

⑨ 바리공주가 약수물을 가지러 길을 떠난다.

⑩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난다.

⑪ 바리공주는 약수를 얻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행한다.

⑫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려낸다.

⑬ 바리공주가 부모 살린 공을 받는다.

서대석은[12] "무가의 내용을 전승지역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 함남지역, 동해안 지역, 호남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중서부지역, 동해안지역, 호남지역 바리공주 전승본의 공통점은 바리공주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병든 부 또는 부모 또는 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으로 가서 약수 지키는 이와 혼인하여 아들들을 낳은 뒤에 재생의 영약을 얻어와 죽은 부모를 살려내고 신이 되는 것이다. 이 공통점들이 바리공주 이본들에서 발견되는 이야기의 핵, 신화소이다.

그런데 바리공주의 이본들 중에서 독특한 것은 함남지역본 바리공주이다. 다른 지역본과는 달리 함남지역본 바리공주는 버림받고, 병든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으로 가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약을 얻어 오는 것이 아니라 훔쳐온다. 그리고 살아난 어머니가 불효한 여섯 딸을 살해하자 바리공주는 이유 없이 죽어버렸고 신이 되지 못하는데, 어머니도 죽는다. 다른 이본들과 달리 비극적인 결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나, 그 이유를 추측할 뿐이고, 연구도 미진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무가로 택한 "무조전설 바리공쥬, 경성무녀 배경재 구전"을 중심으로 심리학적 상징성을 탐색하면서, 특히 함남본 바리공주의 비극적 결말의 상징적 의미를 〈8. 불사약의 획득과정과 이승으로의 귀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무가 바리공주와 외국의 유화들, 특히 독일의 생명수 민담,[13] 만주의 니샨 샤먼,[14] 실크로드 설화 애견이여 춤춰라,[15] 네팔설화 영리한 공주,[16]

12) 서대석(2002) : 앞의 책, p271.

13) 주종연(1999) : ≪한독민담연구≫, 집문당, 서울, pp138-141.

14) 김환희(2005) : "〈바리공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외국의 생명수 탐색담 및 니샨샤만과의 비교연구", ≪동화와 변역≫, 제10집, pp156-158.

15) 이정재(2006) : 실크로드 신화 〈애견이여 춤춰라〉와 한국 무가 〈바리공주〉의 비교연구, ≪한국무속학≫, 43, p394.

16) 이정재(2008) : 한국 무조신화와 네팔설화의 상관성 연구-바리공주 이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회≫, 제17집, p234.

중국의 묘선,[17] 일본의 이자나기제문 본풀이[18]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외국의 유화들에서는 주인공이 병든 또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의 저승여행을 떠나거나 자신을 희생하여 영약을 획득하거나 또는 저승에서 영혼을 데려와 혼을 불어넣어 살리거나 기도법으로 병든 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과정들이 공통점이지만, 바리공주의 전체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무가 바리공주의 일부에서처럼 버림받음 뒤의 고행과 구약과정의 고난에서 남성을 조롱하지 않고 남성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는 여성의 개성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식적인 아니무스의 통합과정 그리고 스스로 신들의 王이 되는 것,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바리공주와 다른 점이지만, 시련과 고통, 죽음, 재생의 자기실현 과정이 보편적임을 밝히고 있다.

융에 의하면,[19] "신화와 민담의 세계 속에서는 숙명적으로 나타나는 체험 콤플렉스인 원형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작용은 우리들의 가장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원형은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항상 재생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며, 그런 가능성을 지닌 층이다. 그 존재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야기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발견되는 이야기의 핵, 이른바 신화소는 바로 원형의 내용, 원형상인 것이다.[20]

다음 장에서는 치유의 힘이 담긴 무가 바리공주에서 반영된 인간 무의식의 표상을 깊이 생각하며 그 뜻을 풀어보고자 한다.

무가 바리공주의 심리학적 상징성

1. 국왕의 조급한 혼인과 바리공주의 탄생

어버이 대왕 두마마님은 세자대군의 나이 십오세가 되자 아들의 혼인을 위해 상궁에게 문복(門卜)을 가라한다. 그 결과 좋은 운수가 닫혀있는 해인 폐길년에

17) 신연우(2013) : 바리공주와 중국〈妙善〉 및 유사설화 비교의 관점, ≪한국민속학≫, 제27집, pp112-113.
18) 김헌선(2015) : ≪한국 무조 신화 연구-비교 신화학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 민속원, 서울, pp225-226.
19)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융 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 출판사, 서울, p141.
20) 이부영(2011a) : ≪분석심리학-C.G.융의 인간심성론≫, 일조각, 서울, p115.

혼인을 하면 공주 일곱을 보고, 크게 운수가 열린 해인 대개년에는 왕자 셋을 본다는 점괘가 나왔다. 국왕은 일각이 삼추 같고 하루가 열흘 같다며 혼인을 서둘러 세자대군은 폐길년에 혼인을 한다. 이렇게 바리공주의 부모는 왕자 셋을 본다는 대개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혼인을 하게 된다. 세월이 흘러 왕과 왕비는 공주 여섯을 보았다. 어느 날 왕비는 꿈을 꾼다.

"오른손에는 보라매를 받아 보이고 왼손에는 백매를 받아 보이고 무릎 위에는 금 거북이 앉아 보이고, 양 어깨에는 해달이 돋아 보이고, 대명전 대들보에는 청룡황룡이 얼크러져 보이는" 태몽을 꾸게 된다. 왕과 왕비는 태어날 아기가 세자대군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하늘은 일곱 번째의 딸, 바리공주를 점지한다.

결혼은 남녀, 음양, 남신과 여신 등 대극 쌍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일이다. 후손(아들)을 생산하여 왕위를 지켜야 했던 어버이 대왕은 점괘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개년의 입태일, 잉태의 시기를 무시하고 일곱공주를 본다는 폐길년에 조급하게 혼인을 결정한다. 어버이 대왕은 우주의 순환주기를 따르지 않고 빨리 서두르는데, 이러한 태도에는 무의식의 의도가 있다.

그림형제의 민담들 중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엄청난 시련을 겪지만, 그 실수가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주인공의 자기실현의 계기가 된 민담들이 있다. "손 없는 처녀",[21] "물의 여신 닉시",[22] "심청전"[23] 모두 급하게 서둘러 약속해 버렸던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부영[24]은 "우연한 실수는 엄청나게 큰 재앙을 부르지만 어쩌면 그것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하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어버이 대왕은 무의식의 원형적 질서를 무시했지만, 그 자체가 자아의식을 초월한 우주의 큰 자기의 의도라 할 수 있다.

여섯 공주를 본 후, 왕비는 바리공주의 탄생을 예고하는-태몽, 큰 꿈을 꾼다.

21) 그림형제(김열규 역)(2003a) : ≪그림형제 동화전집 I≫, 현대지성사, 고양, pp195-202.
22) 그림형제(김열규 역)(2003b) : ≪그림형제 동화전집 II≫, 현대지성사, 고양, pp325-331.
23) 최인학, 엄용희 편저(2003) : ≪옛날이야기꾸러미3-한국민담유형집성 : 보통옛날이야기(하)≫, 집문당, 서울, pp266-268.
24)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 한길사, 파주, p263.

오른손에는 보라매, 왼손에는 백매, 무릎 위에는 금 거북이, 양 어깨는 해달, 대명전 대들보에는 청룡, 황룡이 엉크러져 보이는 태아를 잉태할 징조의 태몽을 꾼다.

왕비의 태몽은 모두 대극쌍과 그 합일의 상징이다. 바리공주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그 태몽은 아들이냐, 딸이냐를 넘어선 전체상으로서 바리공주가 처음부터 전체상, 치유자(healer)로 태어날 징조, 신성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는 꿈이다.

영웅의 출생이 항상 비범하듯이 동물들의 보호를 받고 또한 동물을 거느리는 자, 바리공주 역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범상치 않은 신성한 아기의 출산은 앞에서 언급한 왕비의 태몽에서 예지하고 있다. 이 꿈은 남아, 여아를 떠나 음양의 합일, 모든 게 갖춰진 완전한 아이, 대단한, 거룩한 존재, 다시 말해서 왕(王)이 태어날 꿈인 것이다. 이 아이는 대극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기원형의 그 자체, 전체성을 의미한다. 즉 이 태몽은 신성한 아이의 출현을 예고하는 꿈이다.

국왕과 왕비로 대변되는 집단적 의식의 양극의 합일로 새로운 의식이 잉태되었으며 그 결합으로 신성한 아이가 탄생했고, 그 탄생은 내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25] 그것은 잠재적인 미래의 인격, 그 새로운 의식은 대극을 합일하는 매개자로서[26] 전체가 되게 하는 치유자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인격으로 탄생한 바리공주는 신성한 아이의 신화소이며 치유자원형, 자기(Self)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2. 버림받음, 고난의 시작

하늘이 일곱 딸을 점지하자, 국왕은 딸이라는 이유로 아기를 뒷동산 후원에 버린다. 난데없는 까막까치가 날아와서 아기에게 한 날개를 깔아주고, 한 날개는 덮어준다. 까막까치가 소란스럽게 짖자 칠대 중전마마가 후원에 버린 아기를 안아오라 하여 보니, 아기의 귀에는 왕개미가 입에는 금개미가 눈에는 실개미가 가득

25)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a) : 융기본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p295.
26)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53.

하다. 또 다시 아기를 버리려는 국왕은 사해용왕께 득죄한 대로 진상을 보낸다며 함쟁이를 불러들여 옥함을 짜고, 그 안에 아기를 넣으며, “바리”라 이름 짓는다.

옥함에 금거북 자물쇠를 어슷어슷 채워놓고, 칠공주 세글자 금으로 새기고 예대신이 앞에는 황천강, 뒤에는 유사강, 까치여울 피바다에 옥함을 던지니 금거북이 나와서 바리공주를 넣은 옥함을 짊어지고 동해바다, 어딘가로 가버린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바리공주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모든 영웅은 대부분 어려서 버려진다.

즉 버려짐의 주제 등은 전체성에 이르기까지의 불확실한 정신적 실존 가능성, 다시 말해서 최고의 선에 이르기까지 겪게 될 험한 고난을 묘사하려는 것인데, 이때 환경은 어떤 형태로 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융은[28] “어린이의 숙명은 ‘자기’의 생성 시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사건들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라 하였는데, 바리공주가 친부모에 의해 버려짐은 바리공주가 스스로 가야하는 운명이자, 소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버림받음의 고통과 방황은 원시사회의 성인의례(initiation)의 3단계, 고통, 죽음, 재생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고통에는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새로워 질 수 있는 기회이다. 버림받음의 고통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고 ‘새로워짐’ 즉 자기실현, 인격의 변환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29]

아기공주가 후원에 버려져 위험에 노출되자 신성한 아기임을 알고 있는 까막까치와 개미들은 아기공주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징으로 본다면 땅의 지극히 낮은 미물과 하늘의 새가 바리공주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후원에 버려진 바리공주는 한번 죽은 것이다.

그러나 어중간하게 버려지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 국왕은 바리공주를 저승까지 확실히 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철저하게 버린다. 이렇게 전체성으로서의 아기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국왕은 아기를 다시 버리기 위해 함쟁이를 불러들여 옥함을 짠다. 함은 일상적인 생활과 격리, 구획되고 밀폐된 내밀한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는 존재이

27)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55.
28)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위의 책, p253.
29) 이부영(2002) : ≪자기와 자기실현-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 한길사, 파주, pp104-105.

다.[30] 바리공주 역시 옥함에 담아 강에 버리게 되는데, 무가 속의 주인공들이 석함 속에서 출생하거나 그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함이 지니고 있는 재생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31] 즉 융에 의하면[32] "갇히는 상태는 새로운 탄생 바로 직전의 잠복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통은 주인공을 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의 부화기와 비슷한데, 어느 무엇보다도 진실되고 확실한 의식된 인격의 내적인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33] 하였다.

이부영[34]에 의하면 "버림받음의 고통은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자기실현을 체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바리공주의 '버림받음'은 형태를 달리하여 현대인의 꿈에 재현된다.

다음은 전문직업인의 역할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온 40세의 남성 피분석자의 꿈이다. 11회기에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꿈을 꾸었다.

>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뭔가 잘못되어서 죽었다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그래서 나는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었다. 한참을 뛰어갔는데 아주 허름한 집이 나타났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없었으며 집안에서 한 아이가 걸어오고 있었다. 꿈에서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나의 모습은 뒷모습만 보였으며 한참동안 멍하니 바라보다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 잠을 자지 못하였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허름한 집은 산언덕의 곧 쓰러질 것 같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며 염전에서 소금을 재어 놓는 판자집이라고 하였다. 피분석자에 의하면 그 집은 한 번도 와 본적이 없는 집으로 아이가 있을 수 없는 집이며, 아이를 방치했다고 한다. 그런 집에서 아들(4~5세 정도)인 앙상한 아이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표정 없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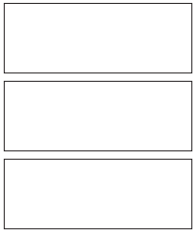
30)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629.
31)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위의 책, p629.
32)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융기본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p116.
33)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pp138-147.
34) 이부영(2002) : 앞의 책, pp101-103.

이 꿈은 피분석자의 살아온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다. 민담, 신화에서 처럼 상징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박하고, 단순하고, 절실하다. 피분석자는 사회적 페르조나를 동일시하면서 악에 바쳐 힘들게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혹한 상태에서 소금이 아이를 낳게 하면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나오게 된다. 이 아이는 아이가 살 수 없는 집에 방치되었고, 버려져 죽었다 그리고 살아난 영웅, 피분석자의 새로운 인격이다. 고통, 죽음, 재생의 통과의례를 겪고, 즉 '새로와짐'을 경험한 인격의 변환과정을 체험한 대단한 아이이다. 이제 피분석자는 자신 안에 생긴 새로운 아이, 죽었다 섞지 않고 살아나온, 미래의 아이를 인식하고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극도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깨달아 통찰이 되었을 때, 전체가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데 나는 바리공주 논문을 작성하는 중, '버림받음, 고난의 시작'에서 더 진행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 뭔가 미진함을 느끼며, 그리고 꿈을 꾸었다.

<2017. 9. 18>

… (중략) 나의 집이 있는 동네, 나는 그 길을 산책하고 있다. 사람들이 없어 여유롭고, 편안하다. 나는 길을 걸으며 동네를 구경하고 있는데 산 밑에 큰 절이 지어져 있다. 정성들여 지은 절, 아담하면서도 고풍스럽고, 귀한 절 같다. 그 터를 매입한 주인은 집을 안 짓고 절을 지었다는 것이다. 난 참 대단한 분이네! 감탄한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개의 터가 더 있다. 그 터에도 집을 안 짓고, 2번에는 한국의 절,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의 일주문이 고풍스럽게, 웅장하게 세워져 있고, 3번에는 인도풍의 베이지색으로 된 문에 불교와 관련된 상들이 조각된 문이 (둥근 아취형) 서 있다. 아름답기도, 웅장하기도, 고풍스럽고, 정성스럽고 귀한 문들과 절이다.

그 때 분석가 선생님이 고요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니 나에게 말씀하신다. 불교에 관련된 성지순례를 함께 가자고 하신다. 나는 이 곳에도 절이 많은데 어디를 가자고 하시는 건지 좀 의아했다. 선생님은 불교의 원래의 터에 대한 순례라고 하셨다. 난 그때서야 아! 은밀하고 내밀한 순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버림받음, 고난의 시작"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꿈의 자아는 밖에 지은 큰 절과 문들이 아담하면서도 웅장하고, 고풍스럽고, 귀한 모습들에 감탄한다. 그러나 분석가는 절터를 함께 순례하자고 제안한다. 절은 세속을 버린 경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님의 사람들! 세속을 버린 사람들이 만든 것이 절이다. 꿈의 메시지는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근본적인 밑바닥의 정신을 세심하게 살펴서, 안 보이는 절, 버려짐의 정신을 하나씩 공들여 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나는 이 꿈을 통해 버림받음의 깊은 정신을 깨달아야 함을 알았다.

'버림받는 것' 무엇으로부터 버림받는가!

바리공주는 왕궁에서 버려진다. 공주의 힘, 페르조나가 없어지는 것, 피동적인 잃음이다. 어른이 되어 능동적으로 출가한 붓다는 왕자의 지위 등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린다. 피동적인 버려짐, 능동적으로 버림, 이 둘은 서로 통한다. 붓다와 바리공주는 세속의 가치로부터 떠나 영웅의 길을 가며 깊은 개성화의 진실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집단 사회의 규범인 페르조나를 버리고 자아보다 위에 있고 전체를 포괄하는 자기(Selbst)에게 이바지 한다는 의미,[35] 즉 무의식의 자기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폰 프란츠(2013)[36]는 "개성화의 실제과정—자기 자신의 내적중심(정신의 핵) 또는 자기(Self)와의 의식적 대화—은 보통 인격의 상처와 그에 따르는 고통과 함께 시작한다. 이 첫 번째 충격은 마침내 일종의 '소명'이 된다"고 하였다. '버림받음, 고난의 시작'은 만신의 王이 되어야 하는 바리공주의 '소명', 무의식이 보내는 첫 번째 충격인 것이다.

'버림받음'은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사회통념으로부터, 삶으로부터의 버림받은 자는 홀로되어 고립, 외로움, 두려움, 분노, 밀려오는 슬픔과 아픔들의 고통스러움, 고독을 견디고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 그 고통, 쓰디 쓴 약은 새로워지는 재생의 기회, 살아나는 약이 되는 개성화를 체험하게 한다. 그 길이 버림받은 자의 운명이자, 소명인 것이다.

35) 이부영(2002) : 앞의 책, p109.
36) 칼 구스타프 융 엮음(이부영 외 역)(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185.

3.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의 보살핌 속에서의 성장

일반적으로 영웅은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 밑에서 성장한다고 하였다. 무가 바리공주에서도 국왕과 왕비는 바리공주를 여자라는 이유로 버린다. 버려진 바리공주는 석가세존님에 의해 양부모와 인연을 맺는다. 이 내용은 영웅신화의 유형을 따르고 있었지만, 나는 한 가지 물음이 내 맘속에 떠올랐다.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는 옥함의 아기를 마주하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꿈을 꾸었다.

<2017. 10. 19>

… (중략) 내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자 분석가 선생님이 나의 집에 오셨다. 그동안 내가 조금 끄적거렸던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의 내용을 줄로 그으신다. 내가 보니 별 내용이 없다. 분석가 선생님은 나에게 그림을 그려 주었는데 건강하고, 잘 생긴 소 두 마리,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동물. 그런데 소 두 마리의 얼굴 표정이 좀 늙었고 세월을 견딘 주름도 있는 듯, 그렇지만 선이 굵다. 그 소들 사이에 있는 작은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겠다. 이 아가동물은 주먹만 하고, 귀여운데 그렇지만 뭔가 또렷하고 선이 굵다. 나는 선생님이 그려준 소 두 마리와 작은 아기동물과 마주하고 있다.

이 꿈을 통해, 늙고 세월을 견딘 소들은 본능적인 모성애로서 자신들의 새끼 송아지가 아닌 다른 종의 아기동물을 자애롭게 돌보고 지키고 있음을 알았다. 소는 불교의 십우도가 상징하듯이 인간이 찾아야 할 참마음이라고 한다.[37] 즉 신의 이미지는 신화적,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불교적인 의미에서도 소는 인간의 본래 진면목이다.[38]

나는 그 참마음을 마주하며 이 장을 만나야 함을 알았다.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는 불교의 정신인 자비심으로 부처님이 위탁한 바리공주를 받아들였음을 깨달았다.

석가세존님은 산지킴이인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에게 무엇이 공덕(功德)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깊은 물에 다리 놓아 월천(越川)공덕, 절을 지어 위인(爲人)공덕, 옷 없

37)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앞의 책, p427.
38) 이부영(2002) : 앞의 책, p275.

는 사람 옷 주고 밥 없는 사람 밥 주어 활인(活人)공덕, 목마른 사람 물 주어 급수(給水)공덕, 젖 없는 아기 젖 먹여 기르는 공덕이 제일이라고 말한다. 석가세존님은 그러면 이 아기를 데려다 기르라 하시고 사라진다. 아기의 울음소리 들리는 곳을 가보니 금거북 자물쇠를 채운 옥함을 발견한다.

옥함의 아기를 안고 돌아서니 예전에 없던 일간초옥(一間草屋)이 절묘하게 놓여 있었다.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의 자애로운 보살핌 속에서 바리공주는 성장한다.

융[39]에 의하면 "영웅은 자주 버려지고 그래서 자주 양부모에게 양도되어 두 어머니를 만난다고 한다. 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는 영웅이다. 첫 번째 출생은 그를 인간으로 만들고, 두 번째 출생은 불멸의 반신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버려진 바리공주는 큰 존재인 석가세존의 지시로 양부모를 만나게 되면서 이중혈통을 갖게 된다. 즉 인간적인 부모와 신적인 부모의 혈통으로서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양자가 되어 불사의 힘을 얻었듯이[40] 영웅 바리공주 역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에 의해 양육된다.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는 하늘의 뜻에 따라 사는 분들이다. 왕궁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명예욕과 세속을 가르치며 사는 것이 잘 키운다고 하겠지만, 그들은 늙고 단순하며, 착하고, 자연과 더불어 일하며, 자신을 한껏 낮추고 빌어먹으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는 근원적, 보편적인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인 것이다. 젊은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에 비해 바리공주는 젊은 부모 보다 원초적이고 지혜로운 늙은 부모에게 맡겨진 것이다. 즉 그들은 무제한의 사랑과 자비심을 갖춘 할아비, 할미이다. 세속의 사랑은 미움과 반대되지만, 자비는 순수한 사랑이다.[41]

그 자비는 사사로운 개인적 원망을 넘어선, 다 흘려보낸 경지이다. 인간은 그 자비를 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못한다. 그러나 노부모는 다 버린 사람들이다. 그 버림 속에서 자비심이 나온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상황이 원망스럽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비로와 지는 것이다.

39)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6) : 앞의 책, pp256-257.
40)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159.
41)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원영 역)(2004) :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 문예출판사, 서울, p161.

바리공주를 이러한 사랑으로 키워낸 바리공덕 할아비와 바리공덕 할미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자기(Self)의 상이다. 부처님의 또 다른 얼굴, 부성적, 모성적인 것도 아닌 다 갖춰진, 사심이 없는 자비로운 신의 상! 무한히 베푸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이 승화된 자비로운 노부모의 마음이 만신의 王, 바리공주를 키워낸 것이다.

4. 친부모왕의 병환과 상봉

"날짐승 길벌레도 어미, 아비가 다 있거늘 나의 어마마마 어디 계시옵냐?, 아바마마 어디 계시옵냐?" 즉 "아버지, 어머니 없음"에 직면하게 된다.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는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라고 말하지만 바리공주는 바른대로 일러달라고 말한다. 다음에는 전라도 왕대나무가 아비이고 뒷동산 모구나무가 어미라고 말하자 바리공주는 모구나무에 삼시문안 극진하게 공을 드린다.

세월이 흘러 15세가 된 바리공주는 꿈에 해달이 떨어져 보이는데, 바리공주의 부모는 그때 병환이 위중하여 문복을 한다. 그 결과 "국왕 양 마마 한 날 한 시에 승하하시니 바리공주를 버린 곳을 찾으라"하였다. 양전마마는 한 날 한시에 꿈을 꾼다.

"대명전 들보에서 하늘의 청의동자 여섯 명이 날아와서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국왕전하를 풍도섬에 가두러 왔다 하였다. 그 이유는 하늘이 아는 아기를 내다 버린 죄인데, 회춘하려면 버린 아기를 찾아 들여 약수와 약초를 구해다 드시면 회춘하시리라" 말하였다. 깜짝 놀라 깨니 남가일몽이다.

국왕의 부탁으로 대신은 날짐승도 길벌레도 못 들어오는 바리공주가 있는 곳을 찾아가 모셔온다. 국왕 양마마는 바리공주의 손목을 잡고 용루를 흘리시며 "너를 미워서 버렸겠느냐, 역정김에, 홧김에 버렸다고 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묻는다. 바리공주는 바리공덕 할미와 할아비 공덕으로 살았다고 말한다.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의 자비로운 양육분위기 속에 성장한 바리공주이지만, 바리공주는 자신의 출생 근원을 알고자 한다. 많은 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무속신화 칠성풀이에서도 일곱 아들은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아 신비하게 탄생했다. 아버지에게 버림 받았지만 일곱 아들은 성장하면서 아버지 부재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근원을 알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간다.[42] 바리공주

42) 김영희(2015) :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0(2, 51) : 127.

역시 자신의 존재의 원천, 근원을 양부모에게 묻는다.

바리공주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근원을 깨닫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 것에서 나와 하나로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를 알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근원을 찾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바리공주에게 무의식의 힘이 개입을 한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바리공주는 꿈에 해와 달이 떨어져 보이는데, 그 때 바리공주의 부모는 위중한 병이 든다. 그런데 바리공주의 부모가 위급한 병이 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병고는 고통의 목적, 의미가 있다. 통과의례(initiation)의 소명을 의미하지만 국왕의 경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소명과는 다르다.

바리공주의 부모가 병이 든 것은 바리공주의 소명을 위해서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리공주 부모의 병고는 아기를 버린데 대한 참회의 기회, 죄를 깨우치는 목적이 담겨있다. 즉 버린 바리공주를 찾고,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여행을 통해 약수와 약초를 구해와 죽은 부모를 살리고 만신의 王이 되어야 하는 바리공주의 자기실현, 그 길을 열기 위해 하늘의 뜻으로 회복할 수 없는 병이 든 것이다. 그것 또한 무의식의 의도인 것이다. 이렇게 병고는 무의식으로의 길을 열어주고 공동체와 개인이 무의식의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43)]

양전마마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예시적인[44)] 꿈을 꾼다.

‘대명전 들보에서 하늘의 청의동자 여섯 명이 날아와서 하늘이 아는 아기를 내다 버린 죄로 국왕전하를 풍도섬에 가두러 왔다고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버린 아기를 찾아 들여 약수와 약초를 구해드리라 한다.’

43) 이부영(2011b)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파주, p286.

44)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1) : 융기본저작집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서울, pp172-173.
융에 의하면 꿈의 예시적 기능은 무의식에 나타나는, 미래의 의식 활동을 앞질러 취하는 것으로 예비연습이나 예비소묘와 같은 것이며, 미리 구상된 기획이라고 하였다. 예시적 기능이 꿈이 중요한 성질이기는 하지만, 이 기능을 너무 과대평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는데, 그 이유는 그럴 경우 꿈이 마치 일종의 영혼의 인도자로서의 탁월한 앎으로서 인생에 참된 방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떤 꿈이 과연 예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예측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이부영(2011) :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서울, pp207-208).

꿈은 수면 중에 신의 말씀의 힘으로 형상을 만든 것이다.[45] 꿈은 바리공주 부모에게 살아날 수 있는 적절한 치유법을 알려주고 있다. 병들게 하고 점과 꿈을 통해 치유법을 알려주는 무의식의 의도! 그것은 바리공주를 되돌아오게 하는 무의식의 계획, 즉 바리공주의 개성화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의 뜻에 따라 바리공주는 궁궐로 돌아와 자신을 홧김에 버린 부모를 만난다. 아버지는 자식을 외부세계로 부터의 위협에서 방어하며 어머니는 자식을 내부세계로 부터의 위협에서 지켜준다고 융이 말한 일이 있다.[46] 그러나 바리공주는 방어해주고 지켜주어야 할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 바리공주를 만난 부모는 바리공주에게 그 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묻자, 바리공주는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의 공덕으로 살았다고 대답한다.

그렇게 대답한 바리공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리공주는 바리공덕 할아비와 할미의 자비로운 양육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그렇게 양부모의 공덕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부모보다 훨씬 높은 경지, 집단의식을 뛰어넘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돌아와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바리공주가 양부모에게 구박을 받고 성장하였다면 마음에 한이라는 응어리가 생겨 부모에게 적대감 등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양부모의 진정한 자비로운 양육의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친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 공덕을 가지고 친부모를 바라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바리공주는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바리공주가 자신을 버리고, 병든 부모를 만나기 위해 궁궐로 돌아온 그 마음은 '효(孝)'이다. 그 효심은 양부모의 자애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양부모의 공덕의 힘으로 양육 받았던 그곳에서 바리공주는 신성을 회복하고 자연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병든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구약여행, 저승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이다.

---

45)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이부영 역)(2016) : ≪C. G. 융-우리시대 그의 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p43.

46) Jung CG(1963) : Die Beziehungen Zwischen dem Ich Unbewubten, p91.
이부영(2011)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43, 재인용.

5. 불사약을 구하기 위한 저승행

병이 위중한 대왕마마는 일곱 공주들에게 불사약을 구하러 부모 효양 가겠느냐고 묻지만 여섯 공주들은 모두 못 가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곱 번째 바리공주는 어마마마 배 안에 열 달 들어있던 공으로 불사약을 구하러 가겠다고 한다. 바리공주는 베 바지저고리를 입고 상투를 틀고 패랭이를 쓰고 무쇠주령(지팡이)를 짚고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떠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바리공주의 병든 부모의 마음은 살고 싶은, 생에 대한 애절함이 있다. 그래서 자신이 낳아 궁궐에서 키운 여섯 공주에게 저승에 가서 불사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들은 모두 거절한다. 여섯 공주 역시 부모처럼 살고 싶고,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없다. 또한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는 그 저승으로의 여행이 무섭고, 두려워 감히 행동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것을 버려야 함이다. 여섯 공주도 부모의 병을 낫게 하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들은 삶에 집착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하는 그 마음이 가려진 것뿐이다.

그러나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는 효의 힘은 더 크다. 바리공주는 자신을 버린 부모이지만 낳아준 은혜, 그 공으로 부모 공양하기 위해 이승으로 못 돌아오고 죽을지도 모르는 저승행을 선택한다. 현실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부모를 살리고자하는 마음을 넘어선 모든 죽어가는 자에 대한 연민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약을 구하러 가는 것은 부모 봉양보다 더 큰 사명감이다. 부모가 아니고 거지의 목숨이라도 구하는 길이 있다 하면 나서는 마음인 것이다. 즉 치유자로서의 사명감은 사적 감정을 넘어선다.

이부영[47]은 "심청과 바리공주는 자기실현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야기이지만 부모에 대한 효성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두 이야기에는 순수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들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집단의식의 내용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효는 반드시 집단이 의도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도덕규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누미노제를 가진 신성한 존재에 대한 원초적 경외의 태도, 즉 일종의 종교적 헌신이라는 원형적

47) 이부영(2001) : ≪남성속의 여성, 여성속의 남성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pp270-271.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집단적 도덕규범이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는 집단적 무의식의 정동이 흐르고 있다"고 하였다.

모든 것을 버리고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저승행을 택하는 바리공주의 효! 그 효(孝)가 무엇일까?

진정한 효(孝)는 의식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한 사랑, 존중, 자애로움이 우러나와야 하는 인간 본래의 마음이다. 부모에 대한 감정들, 거기에는 양가적인 감정이 있고 복잡하지만 인간에게는 부모를 흠모하는 마음, 그 효심이 본래 있는 것이다. 효는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있지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형적 체험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심리학적 측면으로 보면 윤리적인 본래의 바탕에서 일어난 원형적 감정인 것이다. 원형적 체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효는 더 깊은데 뿌리하고 있고, 그 뿌리에서 뽑아내 효의 틀을 만든 것이다. 즉 원형적 경험이 의식에 작용해서 하나의 집단적 규범을 만든 것이다. 원형의 경험, 효(孝)는 부모에게서 원형적인 것을 보고, 그 원형에 헌신하는 것이다.

즉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진정한 효(孝)'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 효자, 효녀'는 필요 없는 말인 것이다. 도에 입각한 진정한 효는 효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행동 규범인 세속적인 효와 다른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억지로 효(孝)를 행하면 그 효는, 도와 일치 된 행동이 아닌 것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효'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효자, 효녀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바리공주는 효심이 깊어서 저승행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바리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소명이 너무나 큰,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도에 입각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현대의 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에게 희미해진 원형적인 감정인 효심! 자신을 버린 부모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저승행을 스스로 가고자 하는 바리공주의 그 마음은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며 치료자의 마음인 것이다. 그 마음은 효(孝)속에 담겨있는 원형적인 것을 존중하고, 그 효의 정신, 우리의 자연스러운 효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원형적인 효(孝)는 생각만 해도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감정인 것이다.

바리공주는 베 바지저고리를 입고 상투를 틀고 패랭이를 쓰고 쇠지팡이를

짚은 남복(男服)을 입은 채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바리공주가 험난한 저승을 가려면 여성적인 특성만으로는 갈 수 없어 남성적인 페르조나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부영[48]에 의하면 "여성의 자기실현을 표현하는 이야기에 곧장 등장하는 것이 남장(男裝)여성이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여성의 아니무스와의 의도적 동일시이다. 그로써 여성은 스스로의 남성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적 동일시는 성숙의 한 과정일 뿐 여성주인공은 다시 여성으로 돌아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끝맺기도 한다"는 것이다.

50대 초의 한 여성이 아니무스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꾼 꿈이다.

> "나는 공군, 혼자 전투기를 타고 비행을 마친 후 땅에 착륙했다. 나는 얼룩얼룩한 공군복을 입었으며, 군인답게 곧고 바른 자세로 비행에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서 있다. 머리를 올리고 공군 모자를 썼는데 그 모습이 신선해 보인다."

이 여성의 꿈의 자아는 남성의 할 일을 하였다. 꿈을 꾼 이여성은 강하고, 씩씩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남자 군인의 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즉 이 여성이 아니무스를 통합시키는 개성화 과정에서 남복을 입은 여성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리공주가 가야 할 험난한 저승길은 섬세한 여성의 모습보다는 강하고 추진력이 있고 모험적인 용기들이 요구되는 남성적 특성으로 가야하는 길이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 남장 여인의 페르조나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리공주가 남장을 하고 저승길을 떠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의 도움이 필요하며 아니무스를 발전시키고 통합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것이 아니무스를 의식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드는 바리공주의 개성화 과정인 것이다.

바리공주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저승은 무엇인가?

생의 공간인 이승의 반대어인 저승은 죽어서 영혼이 가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샤먼들과 메디슨 맨들은 그들의 종족의 고난을 완화하는 길을 찾기 위해 저승여행에 착수하는데,[49] 이것은 샤머니즘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

48) 이부영(2001) : 앞의 책, pp278-279.

49)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이부영 역)(2016) : ≪C. G. 융-우리시대 그의 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p131.

김열규[50]는 "저승여행은 영혼에 의해서 이승과 저승 사이의 넘나듬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초월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부영[51]은 저승과 저승여행을 다음과 같이 심리학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다.

"저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밖에 있는 세계, 심리학적 용어로는 의식 너머의 정신세계, 즉 무의식의 세계이다. 귀령은 무의식계에 존재하는 자율적 콤플렉스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강한 감정을 지닌 응어리들이며 무당은 바로 무의식의 이러한 응어리들을 의식에 불러옴으로써 잊혀지고 단절된 의식 너머의 세계를 의식과 합치고자 한다. 또한 저승으로의 여행, 이것은 잃어버린 세계에 도달하려는 인류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며, 분열에서 전일(全一)로, 좁은 세계에서 넓은 세계로 향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표현이다."

바리공주가 저승에 가는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격의 요청이며, 그것은 자아의식을 초월하는 누미노제를 수반한 전체정신, 즉 자기를 통한 판단이라는 뜻이며 우리 마음속의 신의 소리이다.[52]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노모가 병이 들자 애타는 마음으로 노모를 돌보다 꿈을 꾸었다.

> "…한 소녀(그 여성자신)가 죽기를 원한다. 소녀는 만주벌판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한 사냥꾼을 찾아가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한다. 사냥꾼은 그 소녀를 죽였다. 그 소녀 고기는 훌륭했다. 그래서 신들의 성찬식에 쓰여졌다. 타원형의 접시에 그 소녀의 몸으로 요리 된 음식이 담겨져 있다. 커다랗고, 긴 직사각형의 테이블이다. 신들은 한쪽 라인에만 앉아있는 것 같다. 신들의 전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중간 부분만 어른거리는데(서있는 것 같다), 신들은 하얀 계통의 품위 있는 신들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소녀는 자신의 몸, 고기를 신들이 먹어주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 소녀는 신들이 자신의 몸을 먹으면 어머니에 관해 뭔가를 물어보기 위해서이다."

꿈에서 모든 것을 버린 이 소녀는 죽기를 원하며 능동적으로 저승으로 간다.

50) 김열규(2003c) :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서울, p131.
51) 이부영(2012b)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파주, p80, p579.
52) 이부영(2012a) : ≪노자와 융「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한길사, 파주, p18, p114.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소녀의 마음은 고요하다. 이 소녀는 신령들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연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신화적인 이야기이다.

드넓은 대지를 딛고, 황량한 누런 벌판에 서 있는 소녀! 만주 벌판[53]은 자기(Self)를 만날 수 있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통로이며 안내자(사냥꾼)가 있는 곳이다.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을 마주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재생의 비밀을 얻을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나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것, 자기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자기'를 얻게 된다고 융은 말하였다. 희생은 이기적인 요구가 더이상 없는 상실이어야 하는데, 어떤 되돌려 받을 기대도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완벽하게 포기하고 주는 것이 모두가 자기희생인 것이다.[54]

바리공주가 저승행을 스스로 선택한 자기희생의 그 길, 부모를 살리기 위해 효심으로 간 길이기도 하지만 바리공주가 운명적으로 가야하는 소명의 길이기도 하다. 마리 루이제 폰프란츠는 성 크리스토퍼(St. Christopher)가 성스러운 어린이 그리스도(만다라이며 자기의 상징인 세계구에 둘러싸인)를 이고 가는 모습에는 개성화 과정이라는 과업의 무거운 짐을 상징한다고 하였다.[55] 나는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저승으로 향하는 치료자의 소명, 그 모습에서 성스러운 어린이 그리스도를 이고 가는 성 크리스토퍼의 모습[56]을 엿볼 수 있었다.

6. 석가세존님의 안내

저승으로 향한 바리공주는 무쇠주령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휘두르며 삼천리

53) 이부영(2002) : 앞의 책, p175.
이부영(2002)은 "종교세계에서 황야에서의 기도는 세속에서 벗어나 절대자, 심리학적 용어로 그 곳은 '자기'와 직접 만나는 곳이다. 즉 개성화의 중요한 단계인 페르조나와의 결속을 버리는 곳, 모든 집단과 연계되는 욕심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탄생되는 곳이다" 라고 하였다.

54)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7) : 앞의 책, p240, p247.

55) 이부영 외(역)(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p246-247.

56)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는 개성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무가 곧장 축복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여행자의 수호자인 성 크리스토퍼가 이러한 체험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고 하였다. 이 기적적인 어린이는 비록 그것이 그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일지라도, 문자 그대로 보통 인간에게 '내리 누르는' 자기의 상징이다.
칼 구스타브 융 엮음, 이부영 외 옮김(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245.

> 를 간다. 그 길에서, 바리공주는 석가세존님을 만난다. 석가세존님은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날짐승 길벌레도 못 들어오는 곳이거든 어찌하여 들어왔느냐? 라고 물으신다. 바리공주는 부모효양 나왔다가 길을 잃었사오니 부처님 은덕으로 길을 인도 하옵소서 라고 말한다. 석가세존님은 평지 삼천리는 어찌가려느냐, 이에 바리공주는 가다가 죽사와도 가겠나이다. 석가세존님은 바리공주에게 나화(羅花 : 비단으로 만든 조화)를 줄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큰 바다가 있을 테니, 이것을 흔들면은 대해(大海)가 육지가 되나니라 하셨다. 바리공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화를 흔들며, 억만귀졸이 악머구리 끓듯하는 칼산지옥 불산지옥문을 지나고 시왕(十王 : 저승에 있는 열 명의 심판관)갈 이 시왕으로, 지옥 갈 이 지옥으로 보내며 저승길을 간다.

바리공주가 간 곳은, 이승의 인간은 감히 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저승, 어려운 곳을 찾아간 것이다. 그 곳에서 바리공주는 석가세존님을 만난다.

Henderson[57]은 "여러 영웅신화에서 보면 어린 시절에 있을 수 있는 영웅의 약점은 아주 강한 수호자 또는 후견인의 등장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후견인 덕분에 남의 도움 없이는 성취할 수 없었던 초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 배경재본의 〈무가 바리공주〉는 의식에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석가세존은 불교적 신성 관념에 입각하여 형상화 되어 바리공주의 존재전환과 제의적 직능을 보강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강진옥, 2010).[58]

바리공주에서 부처는 어떤 경지에 오른 존재, 절대자이며 모든 것의 핵심, 자기(Self) 그 자체이다. 자기(Self)의 작용이 일어나면 여러 다른 인격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상(image), 부처, 보살, 스님, 노인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교 설화 등에서 보살이 가르침을 주는 것, 그 보살은 부처님의 화신인 것이다. 부처보다 보살은 이해하기도, 접촉하기도 쉽다. 부처는 너무 거룩해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보살, 스님, 노인 등은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의 상(image)으

57) 이부영 외(역)(2013) : 앞의 책, p121.
58) 강진옥(2010) : 「바리공주」의 불교제재 수용양상, ≪비교한국학≫, Vol. 18, No. 2, pp225-226.

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상은 부처님, 하느님, 산신령, 노현자, 노현녀 등으로 여러 모습으로 바꾸어가며 현실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리공주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석가세존님, 부처는 집단적 무의식의 자기원형상인 인격화된 신인 것이다.

융에 의하면[59] 노현자는 꿈에서 마법사, 의사, 사제, 교사, 교수, 할아버지 또는 어떤 권위를 가진 특정한 인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인간이나 난쟁이 또는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심혼의 원형은 통찰, 이해, 좋은 충고, 결정, 계획 등이 필요한데도 자신이 가진 방법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다고 한다. 원형은 이러한 정신적인 결핍상태를 보상하며 그 빈틈을 메운다.

앞의 설화, 민담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개성화에 헌신했을 때 집단무의식의 자기는 다양한 상징적인 인격상으로—부처님, 노인, 산신령, 마법사—나타나 치유의 길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인격상이 현대인의 환상과 꿈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잠자기 전, 나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신 후 집에서 회복중이시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환상이 보였다.

<2014. 2. 22>

"평온한 절. 이 배경이 희미한 가운데 대웅전 밖에 아름다운 금빛, 부처님인지, 그 분의 입술은 빨갛고, 몸은 가느다란 편, 날씬하고 예쁘고 인자한 금빛 왕관을 쓴 또렷한,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분 앞에서 엄마는 평소에 편하게 입는 옷차림으로 서 있는데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계신다. 그분께 감사하다는 표현인 것 같다. 계속 절을 하신다. 어느덧 나도, N도 엄마 옆에서 경건하게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그분께 고개를 숙여 절을 한다. 금빛의 살아있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엄마가 ○○○세까지 사시려면 네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신다. 나는 묻는다. '자비가 뭔가요?' 금빛의 살아있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자비는 곧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N과 함께 엄마를 가운데에 모시고 걸어 나온다."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인[60] 환상이 떠나간 후 나는 부처님, 하느님께

59)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p285-287.
60)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위의 책, p253.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잤다. 그리고 그날 밤 의미 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금빛의 살아있는 그분이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과 비슷한 부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의식에서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나에게 금빛의 살아있는, 자기원형상인 부처님이 나에게 보내준 메시지! 어머니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주관단계에서는 모성성이 오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모성본능에게 자비,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이 꿈을 통해 알았다.

환상속의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의 상(image)인 치유의 신이다. 그 치유의 신은 현실의 어머니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내안의 긍정적 모성본능을 사랑하고, 그 모성본능을 발휘하는 것이 자비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나의 몸이 피곤하면 효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해주었는데,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도 쉬게 하고 사랑해야 했다. 나는 이것이 자기(Self)에 일치한 '효'라는 것을 알았다.

40대 중반의 여성 피분석자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실현하는 체험을 하다 길을 잃었다. 엉망이 된 채 방황하는 긴 시간의 삶을 힘들게 살던 중에 꾼 꿈이다.

> …이번에는 무슨 배 안이다. 오래된, 물속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물이 그득 차 있는 수명이 다한 것 같다. 내가 길을 찾는다. 무슨 줄을 잡았다. 그 줄이 막 움직이더니 나를 끌고 간다. 줄을 놓을 수가 없다. 배 안이 무슨 미로 같다. 순식간에 뱃속을 빠져나간다. 아 그런데 완전히 허공, 창공이다. 나는 줄을 꼭 잡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싶다. 아찔하다. 세상 끝이구나. 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하늘을 날고 있다. 무성한 숲도 보이고, 내가 땅에 닿을 수 있으려나… 그런데 잠시 후 눈을 뜨자 어딘가 내려가 닿으려고 한다. 점점 가까워진다. 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어느 시골 마을에 닿았다. 조용하고 사람들도 안 보인다. 여기가 어디지? 어떤 집에 문이 열려 있길 래 내가 주춤거리며 길을 묻는다. 노인 부부가 있다. 할머니가 길을 물으려는 내 의도를 알고 있다는 듯 어서 들어오라고 하며 가르쳐준다. 여기가 어디라고 일러준다.

피분석자는 의식에서 삶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찾아온 혼란스러운 방황의 기간을 치열하게 겪고 있었다. 개인적 연상에서, 긴 여행을 통해 망망대

해를 다녔던 낡은 배는 수명이 다했다고 한다. 꿈의 자아는 쓸모가 없어 물에 가라앉은 미로 같은 배에서 나오려고 길을 찾던 중, 무의식이 보내준 줄을 잡고 탈출한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피분석자에게 하느님(Self)이 줄을 보내신 것이다. 꿈의 자아는 온화하고, 평범한 노인부부가 사는 집에 도착한다. 그 집에 살고있는 초라하지만 친절하고, 평범한 할머니는 꿈의 자아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다.

융[61]에 의하면 "노인은 주인공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철저한 숙고나 운 좋게 떠오른 생각들, 즉 정신적 기능이나 또는 정신내적 자동장치가 주인공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언제나 등장한다. 주인공의 결핍을 보상하면서 이에 조언과 도움을 주는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노인의 간섭, 원형의 자발적인 객관화"라고 하였다. 그는 "원형은 무의식의 자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원형들을 구체화하는 민담은 그 속에서 노인을 꿈에 등장시키는데 현대인의 꿈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62] 길을 잃은 꿈의 자아에게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실체 즉 자기(Self)가 줄을 보내 끌어올리고, 지상에서는 노인 부부가 사는 집의 할머니가 길 안내를 하고 있다. 이 노인은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상으로 노현녀, 노현자 또는 자기원형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환상과 꿈에서도 자기원형은 작용을 하며, 살아 움직인다. 그 기반 위에서 부처님, 노인의 인격상으로 나타나 길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공주의 저승으로의 여행길! 심리학적으로 '저승으로의 여행'은 의식 경계 너머 세계로의 여행, 즉 무의식계로의 여행을 의미한다. 미지의 세계로 가서 이승, 즉 의식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구하려는 태도가 상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63] 그런데 구약여행을 떠나는 바리공주의 그 길에 자기(Self)가 돕지 않으면 바리공주는 저승에 갈 수가 없다.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석가세존님, 그 존재가 자기원형상이다.

현대인의 삶에도 그 존재의 안내를 받을 때 그 개인은 고통, 죽음, 재생의 힘든 통과의례의 과정에서 겪는 모든 잡념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정 자기 자신

61)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288, p291.
62)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위의 책, p293.
63) 이부영(2012b) : 앞의 책, p103.

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7. 무장신선과의 만남

부처님이 주신 나화를 흔들며 저승길을 가던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을 만난다. 무장신선은 키가 하늘에 닿고, 얼굴은 쟁반만하고 눈은 등장만하고, 코는 줄병 매달린 것 같고 손은 솥뚜껑만 하고, 발은 석자 세치 이다. 부모 봉양 하러 온 바리공주에게 무장신선은 물 값, 나무 값으로 물 삼년 길어주고, 불 삼년 때어주고 나무 삼년 베어달라고 한다. 바리공주는 그렇게 아홉 해를 살았다. 무장신선은 바리공주에게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니, 자신과 백년가약을 맺고, 일곱 아들을 낳아 달라고 한다. 바리공주는 부모 봉양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바리공주는 무장신선과 혼인을 한 후 일곱 아들을 낳아준다.

저승길을 가던 바리공주가 만난 무장신선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

신선(神仙)은 도(道)를 닦아서 현실의 인간세계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산다는 상상의 사람이며, 세속적인 상식에 구애되지 않고 고통이나 질병도 없으며 죽지 않는다고 한다.[64]

신선은 인간이 아닌 높은 위치에 있는 불로불사의 인격이다. 무가 바리공주를 현대어로 옮겨준 조현설은 무장신선은 저승의 약수와 환생화를 지키는 신선이라고 하였다. 바리공주가 만난 무장신선은 저승에 살면서 생명수와 환생초, 불로불사약의 소유주인 보통신이 아닌 인격인 것이다.

불사의 치유의 힘을 가진 노자, 서왕모, 무장신선의 모습에서의 공통점은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경이로운 초자연적(超自然的)존재라는 것이다. 무장신선은 바리공주 내면의 심혼, 남성적 인격인 아니무스인 것이다. 바리공주의 여성성이 성숙하려면 자연 그대로의 무의식의 인격, 아니무스를 만나고 받아 들여야 한다. 이 아니무스는 영혼의 인도자이며, 의식과 무의식의 중재자이다.

무장신선! 그 신화적 상이 바리공주가 심층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무장신선은 부모봉양 하러 온 바리공주에게 구약의 댓가로 물삼년 긷고, 불삼년 때어주고, 나무삼년 베어 달라고 한다. 그렇게 바리공주는 석삼년 아홉

64) 국립국어연구원(2000) :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서울, p3834.

해를 산다.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린 약을 얻기 위해서는 무장신선이 내어준 과제들을 오랜 세월 견디고 극복해야 한다.

무장신선이 바리공주에게 내어준 과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불사의 신화와 사상≫을 저술 한 정재서는 "득선을 향한 과정으로 주인공은 열악한 환경-유기(遺棄), 가난, 질병 등-속에서 스승을 만나게 되고 시험과 사역(使役)을 담당하는 등 갖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스승을 섬긴 끝에 비결을 전수받아 불사의 단약을 합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이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개성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65]고 하였다.

가장 비밀스럽고 중요한 장생의 비결은 꼭 합당한 사람에게만 전해져야만 하는데 그러한 자질을 검토하기 위해 스승은 오랜 기간 수도자의 품행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엔 시험의 형식을 취해 비결전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수도자가 훌륭한 스승을 지성껏 모시고 갖가지 시험을 무난히 통과하여 자질을 인정받게 되면 비로소 스승으로부터 불사의 단약을 합성하는 비결을 전수받게 되고 수도자는 최종의 과업에 당면하게 되는 것이다.[66]

그런데 불사약을 구하러 온 바리공주에게 무장신선은 어떤 의미로 물 긷고, 불 때고, 나무 베어오는 과제를 주었을까?

물, 불, 나무 상징의 공통점은 생명력과 재생, 여성성, 모성이다. 무장신선이 긴 세월 동안 바리공주에게 준 물 긷고, 불 때고, 나무 베는 과제를, 바리공주는 진심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 이것의 심리학적 의미는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허드렛일,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바로 그 과제들을 수행함으로써 바리공주는 생명의 원리, 모성, 치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생의 힘이 담겨있는 물, 불,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게 한 것이다. 즉 바리공주가 영적인 성장을 한 것이며, 그 과정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긴 세월의 그 과정은 바리공주가 부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얻기 위한 다시 말해서 신선이 되기 위해 훌륭한 스승을 만나 봉사하고, 인정받고, 그 비밀스러운 비결을 전수 받는 것과 같은 구도의 고행인 것이다. 분석심리학적 언어로 고통, 죽음, 재생의 통과의례, 즉 개성화의 과정인 것이다.

65) 정재서(2005) :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서울, p168.
66) 정재서(2005): 앞의 책, pp175-177.

바리공주가 무장신선의 과제를 수행했던 석삼년, 아홉 해의 긴 시간!

폰프란츠(1974)[67]는 "시간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환(transformation)"이라 하였다. 바리공주에게 석삼년, 아홉 해의 시간은 그 변환을 기다리는 과정인 것이다. 그 오랜 기간을 견디었기 때문에 불사약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죽은 부모를 살리고, 만신의 王, 완전한 신격을 얻은 것이다.

부모를 살리려는 효심으로 석삼년, 아홉 해, 그 일상을 하루, 하루, 견뎌낸 바리공주에게 무장신선은 '그대는 앞으로 보면 여자의 몸이 되어 보이고 뒤로 보면 국왕의 몸이 되어 보이니' 자신과 백년가약을 맺어 일곱 아들을 낳아 달라고 한다.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며 무장신선과 혼인을 한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리공주는 물 긷고, 불 때고, 나무 베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생명의 원리, 모성성, 치유와 재생의 원리에 대한 능력을 갖추었고, 이제 새로운 몸을 가진 것이다.

융[68]은 "양성적인 근원적 존재는 인격의 통일, 즉 자기의 상징이 된다고 하였다. 대극의 갈등은 그 속에서 평온해지며, 그 근원적 존재는 처음부터 이미 무의식적 전체성을 투사하면서 인간 존재의 자기실현이라는 목표로 향하고 있다. 인간의 전체성은 바로 의식적 인격과 무의식적 인격이 하나로 합일되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연금술에서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융합이라는 관념은 더 이상 탐구 될 수 없는 신비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자연의 최고의 대극의 합일이 자웅동체(양성체)이며,[69] 그것은 스스로 수태하여 스스로 분만하는, 스스로 자족하는 존재, 우로보로스(Ouroboros)이다.[70] 바리공주는 긴 세월 동안 물, 불, 나무를 다루는 원리를 터득하면서 새로운 몸, 남성적이기도, 여성적이기도 한 양성자가 된 것이다. 즉 변환이 일어난 것이다.

바리공주는 오직 부모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무장신선과 결혼을 하는데, 그 관계는 세속적인 남녀 관계의 감정이 아니다. 즉 결혼은 대극이, 하나가 되는 대극합일의 상징이며 이 결합은 성적 경향이라기보다는 양극을 합치는 것, 융합, 신성혼일 것이다.

---

67) von Franz ML (1974) : ***Number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p257.
68)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3) : 앞의 책, pp266-267.
69)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a) : 앞의 책, p349.
70)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a) : 위의 책, p261, p338.

융에 의하면[71] "융합(Coniunctio)은 하나인 것, 하나로 된 것을 탄생시킨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주적 관념이라고" 하였다.

바리공주와 아니무스의 원형상인 무장신선과의 융합, 그 신비적 결혼은 대극 합일의 원형을 상징하는 신화소이다. 이 신성혼을 통해 바리공주는 신성함과 힘으로 상징되는 그 능력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전체성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만남이 현대인의 꿈에는 어떻게 표현될까?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꿈 분석을 받던 한 여성의 꿈이다. 이 여성은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분석과정을 통해 부성콤플렉스를 마주하고 꿈속의 아버지 상(像)이 실제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 안의 부성원형임을 깨달을 즈음에 꾼 꿈이다. 무의식의 의도는 개인적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을 지양하고 남자 선인, 자신의 무의식의 초월적 심혼과의 융합을 주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바리공주도 저승에서 무장신선을 만나 결혼하는데, 이 여성 역시 하늘(저승, 무의식)에서 결혼을 한다.

> "천상세계, 아늑하고 편안. 파스텔 톤의 구름. 전체적 분위기가 평화스러움. 한 여자가 아버지를 잃고 하늘에 올랐다. 한 도인(하얀 옷, 하얀 수염, 하얀 긴 머리)이 이 여자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그 세계를 준비했다. 그 여자는 한 남자 선인을 만나 혼인을 했고, 그 여자의 능력은 강화됐다…"

여성은 부성콤플렉스가 해결이 안 되면 진정한 아니무스 원형, 대등한 반려자의 상이 나오지 않는다. 꿈의 자아는 아버지를 잃고 천상의 세계인 하늘에 오른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여성은 이제 개성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여자가 올 것을 미리 안 한 도인의 인격은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자인데 대극 합일의 세계를 준비한다. 그 노인은 노현자(Old Wise Men)이며, 자기(Self)의 분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Self)의 사자, 심부름꾼인 것이다. 천상의 세계, 즉 저승, 무의식으로 간 그 여성은 젊고, 온화한 남자 선인을 만나 혼인을 한다. 그 여성의 꿈자아는 자기의 심혼, 아니무스 인격과 융합을 한다. 즉 그 여성과 남자 선인은 대극의 합일을 통해 전체, 하나가 되었고 그 여성의 능력은 강화되었다.

71)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a) : 위의 책, p268.

이러한 신성혼은 신화, 종교, 무속 그리고 현대인의 꿈에 표현되는데, 인간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임을 체험하게 한다. 즉 바리공주와 무장신선의 원형적 상이 현대인의 심층에도 살아있음이다.

융[72]에 의하면, "연금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먼저 낡은 것이 죽지 아니하고는 어떤 새 생명도 생길 수 없다"고 하였다.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는 버림받은 이전의, 바리공주의 페르조나를 벗고, 죽고, 재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그 탄생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생명력의 부활, 모성, 치유, 재생의 원리를 의미하는 과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장신선이 요구하는 과제들을 통과하면서 바리공주는 변환이 일어나 양성체의 존재가 되었다. 바리공주는 국왕인 여자(여왕), 무의식의 아니무스, 무장신선과의 결합으로 자연상태의 분화가 필요함이다. 그리고 바리공주와 무장신선과의 신성혼 그 융합을 통해 일곱 아들, 심혼의 아이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리공주와 무장신선의 융합, 하나에서 태어난 신성한 일곱 아들, 그 모든 것이 자기(Self), 전체상이다. 이 융합의 상징은 한국인의 정신체계 속에 살아있는 신비한 비의(秘儀 : mysterium)이다.

8. 불사약의 획득과정과 이승으로의 귀환

바리공주는 무장신선과 혼인하고 일곱 아들을 낳은 후, 꿈을 꾼다. 초경(初更, 저녁 7~9시)에 꿈을 꾸니 은바리가 깨어져 보이고, 이경(二更, 밤 9~11시)에 꿈을 꾸니 은수저가 부러져 보였다. 이 꿈을 꾼 후 양전마마가 한날한시에 승하하신게 분명하다고 느낀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에게 부모봉양이 늦어진다고 말한다. 무장신선은 바리공주에게 부모님을 살릴 불사약을 알려준다. "그대 긷던 물이 약령수이고, 그대 베던 나무가 살살이 뼈살이니 가지고 가오." 바리공주는 무장신선과 일곱 아기와 함께 죽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 이승으로 귀환한다.

꿈을 통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직감한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에게 부모봉양 늦어진다고 말하자 무장신선은 바리공주가 긷던 물과 베던 나무가 불사약이니 가지고 가라고 한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불사약은 바리공주가 일

72)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a) : 앞의 책, p278.

상에서 매일 긷던 물과 매일 베던 나무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반반 버들잎 최공시와 엽엽이',[73] '마리아 모레브나',[74] '이반왕자와 검은 머리채의 미인 마리아',[75] '훈쿠바이와 둥근머리 말',[76] 그리고 '바리공주'에서도 주인공은 죽은 사람에게 불사약을 갖고 와 죽은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재생을 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불사약은 노파가 주는 병속의 물, 동물이 갖고 온 죽음의 물과 생명의 물, 참나무가 내어주는 물, 백산의 생명수와 붉은 낙엽송 그리고 무장신선의 뜰에서 바리공주가 매일 긷던 물과 베던 나무인 것이다. 그 물과 나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 생명의 나무인 것이다.

특히 바리공주의 이본들 중에서 함남지역본 바리공주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불사약을 훔쳐오는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훔쳐온 불사약으로 어머니는 살아났지만 그 이후 어머니도, 여섯 딸도, 바리공주도 모두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나는 함남지역의 바리공주에서 이 부분이 특히 의구심이 들었다. 왜 바리공주는 만신이 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야 했는가! 나는 그 답을 아주 오래전의 나의 꿈에서 찾았다.

<1999. 5. 20>

나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떤 섬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중세기에 돌로 지은 고풍스러운 수도원이 있었다. 우리는 그 수도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다. 그 수도원은 깨끗했으며, 분위기는 밝고 평화스러웠다. 그 수도원에는 2~3명의 수녀님이 사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는 섬을 떠나 배를 타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사람들은 침착성을 잃고 공포에 질려 배를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배는 섬과 좀 떨어진 바다 위에 정박해 있었다. 어느덧 나는 바다와 배가 보이는 수도원 성벽 위에 있었다. 사람들은 성벽 위에서 성급한 마음으로 무모하게 바다로 뛰어들었다. 뛰어든 사람들은 「악」소리를 지르며 바다 위로 떨어져 죽기도 하였다.

그런데 성벽 위에는 회색 빛깔의 옷을 걸친 예수님이 손으로 돌을 계속 파내고 있었고, 파인 곳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의 성급한 모습이 안타

73) 임석재(1993) : ≪한국구전설화 제7권≫, 전라북도1, 평민사, 서울, pp243-248.
74) 안상훈(엮음)(2003) : ≪세계민담전집2 러시아편≫, 황금가지, 서울, pp163-183.
75) 안상훈(엮음)(2003) : 위의 책, pp259-274.
76) 김환희(2005) : 앞의 책, pp152-154.

까웠다. 예수님 곁에서 그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 물을 마시고 배로 가면 생명을 얻는데, 뭐가 급해 저런 행동을 해야 되나 생각했다. 나는 예수님이 손으로 파낸 샘물에서 점점 물이 고이면서 맑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꿈의 자아는 사람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가야할 곳, 섬으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도를 닦는 수도원이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잠시 머물다 현실로 향하게 되는데 집단 암시에 걸린 그들은 더 당황해 하며, 성급하고, 무모하게 배에 오르려다 죽기도 한다. 현실에 집착해서 성을 빨리 떠나야 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수님은 천천히 손으로 돌을 파내는데, 그 샘에서 생명의 물이 고였고, 그 물을 마시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치유원형인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체가 대답이다.

"서두르지 마라,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 즉 꿈은 수도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천천히 파내는 샘에서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있음을"가르쳐 주고 있다.

서두르면 바다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생명의 물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함남지역의 바리공주는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불사약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즉 노력 없이 불사약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태도가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민담들, 바리공주 이본들 대상무가 바리공주처럼 불사약을 얻는 주인공들의 태도는 서두르지 않고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적인 힘은 물, 나무, 꽃, 잎사귀[77] 등으로 표현되는데 그 상징들도 의미는 있지만, 그보다는 주인공이

77) Ashliman DL(1987) : *A Guide to Folktales In the English Language-Based on the Aarme-Thompson Classification System-Greenwood Press*, Westport, Connecticut, p132.
〈The Three Snake-Leaves〉
한 남자가 공주와 결혼을 했다. 그 남자는 공주가 먼저 죽으면 그 자신도 공주와 함께 묻히기로 약속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는 아파서 죽었다. 무덤 안에 갇힌 그 남자는 무덤 안에서 뱀을 보았고, 그 뱀을 산산조각 내어 죽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다른 뱀이 3개의 녹색 잎을 들고 나타나더니 산산조각 되어 죽은 뱀을 다시 살려냈다. 남자는 그 녹색 잎들을 공주의 눈과 입에 올려놓았더니, 공주는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공주에게 변화가 생겼다. 공주는 곧 선장과 사랑에 빠졌고, 바다 항해 중에 공주와 선장은 그 남자를 바다에 내던졌고 남자는 익사했다. 그러나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였던 그 남자의 충실한 하인은 죽은 주인을 건져낸 후, 뱀 잎으로 주인을 다시 살려냈다. 공주와 선장이 배에서 내린 후 그들의 거짓말은 탄로나 붙잡혔고, 공주의 아버지, 왕은 구멍이 뚫린 배에 공주와 선장을 실어 다시 바다로 보냈다. 그들이 탄 배는 곧 침몰하였고, 그들은 익사했다(Grimm).

죽은 사람의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불사약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로 그 불사약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무가에서, 무장신선은 바리공주가 석 삼년 아홉 해 동안 오로지 부모를 살리기 위해 물 긷고, 불 때고, 나무 베는 하찮은 허드렛일을 일상의 삶속에서 견디어 내는 성실한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불사약을 준 것이다.

융[78] 역시 "기독교에서 신격이 머슴의 모습 속에 숨어 있었듯이 연금술에서는 하찮은 돌 안에 숨어 있으며, 진정한 연금술은 결코 사업이나 경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조용히 희생적으로 일을 행하는 하나의 진실한 작업"이라고 하였다.

노자 도덕경 63장이다.

…어려운 일은 쉬운데서 도모하고,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나니,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내 큰 것을 꾀하지 않으므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부영에 의하면[79] "노자 도덕경 63장에서는 작은 것, 적은 것, 쉬운 것, 사람들이 보통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어렵게 여기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인간사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였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일상(日常)에서의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견디어 내는 성실성에서 생명의 약을 얻는 치유의 힘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그 불사약은 뜻밖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늘상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치료약임을 깨닫게 해준다.

융[80]은 "생명수는 값싸게 구입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당연하게 그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바보들에 의해 멸시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것은 모두 항상 외부의 어디엔가 있으며, 자기 자신의 심

78)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b) : 융기본저작집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출판사, 서울, p110, p123.
79) 이부영(2012a) : 앞의 책, p254.
80)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2) : 융기본저작집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p156.

혼 내부에 있는 샘은 단지 ~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은 값이 거의 나가지 않는 '어디에서나 헐값인' 돌과도 같다"라고 하였다. 즉 치유의 약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불사약의 획득과정과 이승으로의 귀환'을 마무리하고, '죽은 친부모를 살림'을 준비하며 잠을 잤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2018. 10. 31>

엄마가 내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젊어진 모습으로 살아나셨다. 엄마는 나에게 생기 있는 밝은 모습으로 "일상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엄마와 함께 (도시, 어스름) 어딘가를 갔고,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그것도 일상이라는 느낌이 들며 마음이 시원해졌다.

꿈을 통해 나는 늘 되풀이되는 일상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감정이 살아있는 일상이 의미 있는 일상임을 알았다. 어머니, 모성은 "일상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준다.

일상은 늘 반복해 왔고, 반복하고 있고, 반복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내야 할 일상!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상은 원형적인 것이며, 원형에 감정이 들어가야 하듯이 그 일상도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감정이 없으면 그 일상은 지루할 뿐이다. 이 꿈을 꾸고 나는 지루하기도 했던 아침의 반복적인 생활이 소중하고, 신선하게 느껴졌다.

나는 바리공주가 오랜 기간 크게 평가 안하는 허드렛일을 하며 평범한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낸 그 평상심(平常心)이, '자기 자신과 일치'되어 전체정신을 실현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자비[81]임을 알았다.

죽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 불사약을 구하러 저승으로 갔던 바리공주는 그 영원한 곳에서 불사약을 가지고 무장신선과 일곱 아들과 함께 이승으로 귀환한다.

이승으로의 귀환!

이부영[82]에 의하면 "샤먼은 저승에 가지만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능력은 입무의 고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입무의 고통을 극복한

81) 이부영(2018) : "자비는 정의를 이긴다", ≪길≫ 19(2), 한국융연구원, 서울, pp2-3.
82) 이부영(2012b) : 앞의 책, pp78-82.

샤먼만이 여러 가지 능력을 획득하는데,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바리공주는 불사약을 획득하기 위해 멀고, 험난한 저승행에서 석 삼년 아홉 해, 긴 시간의 일상을 부모를 살리기 위한 진심을 가지고 견디어 냈고, 그 불사약을 가지고 이승으로 돌아왔다. 불사약을 획득하는 그 창조의 과정, 변환의 과정은 바리공주가 고통을 이겨내는 힘, 부모를 살리기 위한 사랑,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어 낸 것이다. 그 기나긴 일상 안에는 억지로 만들어 하지 않는 바리공주의 자연 그대로의 본성, 삶이 있을 뿐인데, 이것은 무의식에 있는 자기원형상의 모습일 것이다.

9. 죽은 친부모(왕과 왕비)를 살림

바리공주는 저승에서 불사약을 가지고 무장신선과 일곱 아들과 함께 이승으로 돌아온다. 양전마마 한 날 한 시에 승하하셨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리공주는 깜짝 놀라, 일곱 아기는 덤불 밑에 숨기고 무장신선은 수풀 속에 숨긴다. 그리고 죽은 친부모의 관을 열어 숨살이는 숨에 넣고, 뼈살이는 뼈에 넣고, 살살이는 살에 넣고, 일영주(日映珠)는 눈에 넣고, 약령수는 입에 흘려 넣으니 한 날 한 시에 죽은 부모, 왕과 왕비를 살려낸다. 살아난 친부모는 잠도 깊이 들었구나, 앞바다 물구경 나왔더냐, 뒷동산 꽃구경 나왔더냐 라고 묻는다. 이에 물구경, 꽃구경도 아니고 한 날 한 시에 승하하셔서 인사거동 났지만,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불사약을 구해다가, 한 날 한 시에 되살아났음을 알려드린다. 바리공주의 친부모인 왕과 왕비는 환궁하시고 만조백관, 삼천궁녀, 만백성이 만세를 불렀다.

바리공주는 죽음을 살릴 생명의 물, 나무를 가지고 이승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이 승하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깜짝 놀란 바리공주는 양전마마를 대면하기 전 일곱 아기를 덤불 밑에, 무장신선을 수풀 속에 숨긴다.

바리공주가 친부모를 살리기 전, 남편과 아들들을 '숨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불사약을 구해 이승으로 돌아온 치료자,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자(死者)들만 만나야 하는 것이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개인적 가족을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이부영[83]에 의하면 "중국의 황제내경에서도 진찰(診察), 시술시(施術時), 치

83) 이부영(1986) : "黃帝內徑에서 본 醫師-患者關係", ≪서울의대정신의학≫, 제11권, 제1호, pp10-11.

료자의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의사가 진찰이나 시술에 임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창문을 닫고 조용히 하여야 하며, 정신을 집중하여 문진하며, 의사는 평소에 생활이 올바라야 하고 청정(淸淨)한 태도로써 임해야 하며 정(靜)해서 환자(患者)의 의지를 다스릴수 있어야 하며 반안(半眼)을 감은 무아의 경지에서 미묘한 변화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즉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를 살리기 위해 가족들을 '숨긴다'는 상징적 의미는, 치료자인 바리공주는 사적인 것이 개입하지 않는 환경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죽은 부모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치료자의 태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치료자라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하는 가족 콤플렉스, 개인적 콤플렉스를 노출시키지 말고 의도적으로 억압해야 한다. 사방에 집중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치료자인 바리공주는 죽은 왕과 왕비와의 관계에서만 집중해야 치유가 일어나 살아나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 치료의 방법이 아닌 치료자의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심안을 크게 뜨고, 무아의 경지에 서서 정신을 통일하고 뚜렷이 홀로 느끼게 된다"는 八正神明論篇 第二十六의 언급처럼, 치료자의 자아(ego)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심리학적 용어로 자기중심적 태도(Self-Centered Attitude)에 입각하여 즉 초월적 기능에 자아를 맞출 때 그 방법은 옳은 것이다.

바리공주 역시 자아만 가지고서는 죽은 왕과 왕비를 살릴 수 없으며 그 기적적 치유, 비의는 자기(Self)에 임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치료자의 태도를 갖춘 바리공주는 저승 즉, 무의식에서 가져온 생명력으로 죽은 부모를 살린다. 김진영, 홍태한[84]에 의하면 "바리공주가 죽은 부모를 살려내는 것은 모든 이본에 등장하는 공통 서사 단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속신화 칠성풀이, 문전본풀이, 이공본풀이, 바리공주에서 등장하는 꽃, 물, 나무 등은 죽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신화소이다. 꽃, 물, 나무 등이 있는 곳은 신화적인 공간으로서 성역(聖域)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원초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상징해 주고 있다. 김영민[85]은 어느 종교나

84) 김진영, 홍태한(1997) : 앞의 책, p35.
85) 김영민(2002) : 바리공주 무가에 나타난 영육관과 저승관, ≪문화연구≫, 7, p22.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무속에서 삶과 죽음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였다.

바리공주는 신화적 공간인 성역, 저승, 분석심리학적으로 무의식에서 가져온 '생명의 나무, 물'[86]로 대변되는 영력(靈力)으로 정리된 집단적 의식을 회생시킨다. 이 경우 죽음이란 '무의식화', 되살림이란 '의식화'이다. 죽음은 자아, 자아집착의 죽음 또는 희생이며, 되살림이란 새로운 자아의 탄생이다. 바리공주는 그럼으로써 근원적인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관장하는 신격을 획득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박상란(1994)[87]에 의하면 "무(巫)의 기능 중에 하나인, 죽은 사람을 살리기 까지 하는 치병(治病)은 바리공주가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리공주가 무조신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약모험을 한 바리공주는 죽음의 세계를 통과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현실계를 초월할 수 있는 권능을 획득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강신무의 성무(成巫)과정에서 필수적 단계인

86) 본 논문의 대상무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공주는 무장신선에게 불사약인 일상에서 긷던 물, 베던 나무를 획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그대 긷던 물 약령수이니 금장군에 가지고 가오. 그대 베던 나무는 살살이 뼈살이니 가지고 가오." 그런데 불사약인 긷던 물과 베던 나무가 죽은 부모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숨살이는 숨에 넣고 뼈살이는 뼈에 넣고 살살이는 살에 넣고 일영주는 눈에 넣고 약령수는 입에 흘려 넣으시고"
나는 무당이 굿을 할 때 앞부분을 잊어버렸거나 그때마다 자신의 생각, 마음에 따라 달리 구술하는 것인지, 또 나무의 언급이 없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돈스러웠다. 김진영, 홍태한(1997)의 저서에 수록된 바리공주의 이본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죽은 부모를 살림"은 공통적이나 이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했다.
나는 본 대상무가를 현대어로 번역해준 조현설 교수님께 자문을 구했다.
그는 "먼저 무당의 무가 구술은 논리적이지 않고 관습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래서 서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나무가 뼈살이 살살이"라는 표현은 다른 〈바리공주〉 버전들을 참조할 때 나무에 핀 꽃이 뼈살이 꽃, 살살이 꽃이라는 문맥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나는 무가 바리공주는 대대로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무당이 모든 내용들을 기억 못할수도 있고, 구술과정에서 강조하는 바가 각자 다를 수도 있다고 유추했다.
본 대상무가의 앞부분 "그대 긷던 물, 그대 베던 나무"가 불사약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 별일 아닌 것이 굉장히 중요한, 즉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약임을 강조한 것임을 심리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87) 박상란(1994) : 여성영웅의 일대기, 그 두 가지 양상-바리공주와 정수정전을 중심으로-, ≪동원논집≫, Vol. 7, p86.

신병(神病) 및 강신체험과 관련 된다"고 하였다.

엘리아데[88]는 "샤만은 환자를 진찰하고 육체에서 도망친 영혼을 찾아 나서며 마침내 그 영혼을 잡아 그 몸으로 되돌아오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치료사이며, 또한 사자의 영혼을 저승세계인 지하계로 안내하는 영혼의 안내자"라 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 샤만의 주요한 기능은 망아경 Ecstasy 상태에서의 주술적인 치료기능이라고 한다.[89]

샤만들이 고통-죽음-재생의 입무 과정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획득한 것처럼, 바리공주도 그러한 고통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신이한 능력까지 얻은 치유자인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의 이론들을 탐색하며 '죽은 친부모(왕과 왕비)를 살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내 안의 그 무엇이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그고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밤에, 나는 아무 생각, 감정 없이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무엇이 올라왔다.

"살림"은 생명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그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그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90]

바리공주가 친부모인 왕과 왕비를 살리는 그 의미 역시, 바리공주의 개성화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무속신화 바리공주에서는 전통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살려주는 동양적인 자비를 포용하고 있다. 친부모인 왕과 왕비는 고통을 겪고, 죽고, 재생되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바리공주가 가져온 불사약으로 살아난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둔 채,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에서 살리는 힘을 가진 채, 보다 놓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힘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죽은 친부모, 지상에서의 왕과 왕비를 살리는 것! 전통적으로 왕과 왕비는 동양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음양(陰陽)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말하자면 집단에 투사된 자기원형상인 것이다. 음양은 우주, 곧 만물을 유지하는 상호작용하는 두 개의 힘이고, 왕과 왕비는 음양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

88)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역)(2003) : ≪샤마니즘≫, 까치, 서울, p175.
89)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역)(2003) : 위의 책, p205.
90) 국립국어연구원(2000) : 앞의 책 中, p3219, p3377.

여야 한다.[91] 바리공주는 지상의식계의 왕과 왕비, 만물을 움직이는 두 개의 힘을 다시 회복시켰다. 즉 지상의 중심인 왕과 왕비를 살린 다음에야 바리공주는 만신의 王, 즉, 우주의 중심(中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속신화 바리공주에서는 낡은 것은 죽어야 하는 그런 혁명적인 정신보다는 보다 큰 용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은 부모, 왕과 왕비를 살린다. 나는 바리공주의 자비로운 마음이 저승으로 향하게 했고, 불사약을 구해와 자신을 버린 죽은 부모를 살리는 큰 자비로움이 만신의 王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정신임을 알았다. 지상의 중심인 왕과 왕비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주의 중심인 만신의 王이 되는 바리공주! 이 모두가 전체상, 하나인 것이다.

불사약으로 죽은 부모를 살리는 자기(Self)에 입각한, 그 비의가, 그 치유의 힘이 우리의 정신 속에 상징으로 살아있음이다.

10. 만신의 인위왕(人爲王)이 됨

바리공주가 저승에서 가져온 불사약으로 살아난 아버지 국왕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를 국(國)을 반을 주랴? 사대문에 드는 천을 주랴?"라고 묻는다. 이에 바리공주는 "국도 지녀야 국이 옵고 천도 지녀야 천이로소이다. 소녀 부모 슬하에 호의호식 못하였사오니 만신의 인위왕(人爲王)이 되겠나이다"라고 말씀드린다.

나는 "만신의 인위왕(人爲王)"이 독특하게 다가왔다. "만신의 인위왕"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2018. 12. 2>

…나는 신라호텔에 갔다. 나는 독특한 모습으로 대변을 보기 위해 편안하고 조용한 방을 찾고 있다. 나는 복도 끝의 방 두 개의 방을 발견한다. 문이 두 개이지만 한 방이다. 그 방안에는 중앙에 기둥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기둥을 잡고 춤을 추듯이 서서 대변을 봐야하는 무슨 의식 같다. 그 방 안은 소박하고, 수수하고, 어스름하고, 다른 가구들은 보이지 않고 나 혼자 그 의식 같은 행위를 해야 한다. 아무도 없다. 나는 춤을 추며 부드러운 동작으로 대변을 보는 것에 흥미가 느껴

91) 아서 코트렐(도서출판 까지 편집부 역)(2002) : ≪그림으로 보는 세계 신화 사전≫, 까치, 서울, p171.

지는데, 그러면 유연하게 대변을 본다고 한다. 그 때의 대변은 건강한 대변이다.

그런데 문을 잠글 수 없다. 문 잠그는 장치가 조금씩 문제가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문을 두드리고 연다. 사람들이 몇몇 그러다 다녀갔고 내가 문 잠그는 장치를 점검 하려는데 집단의 사람들이 왔다. 20~30명 좀 젊은 집단(여성들) 그들은 두 줄로 줄을 섰고, 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맨 앞에 있는 두 여성, 한 여성은 젊고 다른 한 여성은 그 여성보다 10년 위. 뭔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듯, 나는 그 젊은 여성이 안쓰럽다. 나는 (옷을 입고 있음)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일상의 무한성에 대해…

그런데 알몸인 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둥근 기둥을 잡고 아주 느린 유연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통해 황금빛의 굵은 변을 보고 있다. 그 변은 이 세상의 인간 대변 같지는 않다.

이 꿈을 꾼 후 나는 '만신의 인위왕(人爲王)'이 연금술과 관련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마음이 들었다.

꿈의 자아는 독특한 대변을 보기 위해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신라호텔로 간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의 문으로 되어있으나 내부는 하나로 통합된 방을 발견한다. 통합된 그 방에서 꿈의 자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둥근 기둥을 잡고 느린 유연한 동작으로 황금빛의 굵은 변을 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둥은 남근의 상징이기도 하며, 중심인 자기(Self)를 상징하고 있는 도의 기둥이다. 꿈의 자아의 몸은 연금술의 용기와 같은 것이다. 그 안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변환되면서 황금빛의 변을 보게 된다. 황금알을 낳는 것과 같은 변을 보기 위해서 꿈의 자아는 끝이 보이지 않는 둥근, 도의 기둥을 잡고 느리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춤을 추듯이, 또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배려성,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되어 다 함께 가야, 즉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논문을 마무리해야 창조의 변을 볼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창조의 변을 보는 것은 일상과 함께하는 창조적 행위로서 중심인 자기(Self)임을 새롭게 인식했다. 또한 "만신의 인위왕"의 존재는 바리공주의 개성화 과정에서 의식화되어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연금술의 '메르쿠리우스'임을 깨닫게 된다.

바리공주는 아버지 국왕에게 '만신의 인위왕'이 되겠다고 말한다. 만신의 인

위왕에서 인위(人爲)는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92]이다. 인위에 담긴 의미는 의식성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즉 내가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의지를 갖고 王이 되는 것이다.

국왕이 바리공주에게 직책을 주는 것은 수동적이어서 인위왕이 될 수 없다. 바리공주는 스스로 의식하면서 이 세상에는 없는 관직, 내가 나를 임명하여 적극적으로 만신의 인위왕을 선언한 것이다. 현세의 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만신의 왕, 전체를 제도하는 왕(王)인 것이다. 그 자리는 국왕보다 높은 자리이며 이승의 세계보다 위에 있는 귀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바리공주는 세속적인 왕보다 더 높은 자리의 왕인 것이다.

이와 같이 바리공주가 자각을 하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며, 인습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은, 바리공주 자신의 길인 것이다. 즉 분석심리학적으로 만신, 즉 수없이 많은 자율적 콤플렉스를 통합함으로써 고통과 죽음과 재생 속에 일어나는 과정을 체험하고, 겪음으로써 만신의 왕이 되는 전체성을 의미한다. 또한 만신의 王이 된다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귀중한 사랑, 자비를 한 후 부모를 놔주고 자유로와 지는 것이다. 부모를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유로와짐! 그것이 바리공주의 진정한 사랑, 자비심이다.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자기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식성의 회복이다.[93] 의식화 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온갖 잡다한 잡귀, 모든 귀신을 통합하는 만신의 왕, 세속과 떠나서 무엇인가 되는 게 아니라 세속을 포함하는 것이 만신의 인위왕이다. 심리학적 용어로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까지 포함한 모든 콤플렉스들의 왕(王)인 것이다.

이와 같이 만신의 인위왕이 되는 과정을 노래한 무가 바리공주는 매우 높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94] 즉 만신을 거느릴 수 있는 인위왕, 바리공주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王이다. 세속에서의 왕은 의식계, 인간계의 주인이지만, 신령들의 왕은 영적인 세계의 우두머리이다. 그래서 바리공주는 만신을 다스리는 무당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의

92) 국립국어연구원(2000) : 앞의 책, p5002.
93) 이부영(2002) : 앞의 책, p156.
94) 이부영(2002) : 위의 책, p268.

왕은 신을 다스리는 존재, 신이기도 하면서 인간이기도 하다. 강력한 신령이다. 이승과 저승의 적극적 중재자, 이승에 발을 딛고 저승의 신령과 귀령들과 소통하는 영혼의 인도자, 전체 세계의 王이다. 만신의 인위왕, 바리공주는 심리학적으로 모든 원형들을 통솔하는 원형, 자기원형(Self Archetype) 즉 자기(Self)인 것이다.

〈연금술의 메리쿠리우스와 바리공주〉

메르쿠리우스는 세계혼으로서 생명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내재하며 탁월한 변환의 실체이다. 그것은 늘 미완성 혹은 미성숙한 몸들을 다시 새롭게 완성시키고 성숙하게 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연금술사들은 메르쿠리우스를 구원자(Salvator), 그리고 봉사자라고 하였다.[95]

이러한 연금술의 작업을 통해 해방된 자는 동시에 불멸성을 획득하게 된다.[96] 연금술사들이 찾던 본질적인 비밀, 인간의 영을,[97] 무가 바리공주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의 심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리공주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불멸성을 지닌 신성함을 상징하는 존재가 의식화되어 완성되는 인격, 즉 만신의 인위왕이므로, 그 상징하는 의미 자체는 생명력을 지닌 모든 것 안에 내재하는 변환의 실체인 메르쿠리우스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오랜시간 동안 허드렛일을 묵묵히 하며 물, 불, 나무를 다루는 원리를 터득한 바리공주는 변환을 체험하며 양성체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바리공주는 무장신선과 대극합일의 융합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저승에서 획득한 불멸의 영약으로 죽은 부모를 살려 다시 생명력을 갖게 함으로써 신성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천하의 중심인 만신의 인위왕 임을 선언한다.

이와 같이 서양의 연금술, 무가 바리공주에서의 공동목표는 비밀스러운 원질료, 기적의 물질인 영약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리공주는 9년이라는 긴 세월, 반복적인 일상을 살며 물, 불, 나무를 다루는 허드렛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영약을, 치유의 약을 획득한다. 바리공주 자체가 연금술의 기적의 그릇

95)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b) : 앞의 책, pp289-291.
96)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이부영 역)(2016) : 앞의 책, p215.
97)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4b) : 앞의 책, p53.

과 같은 것이다.

특히 바리공주에서는 자신을 버렸지만 병든 부모를 살리기위해 효(孝)의 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저승으로 가, 불사약을 얻기 위한 대가로 허드렛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서양의 연금술사와 다른 점이다. 일상에서의 그 허드렛일이 치유의 약이며 그것이 통과의례(Initiation)이다.

즉 바리공주는 품삯으로 노동인 허드렛일을 반복적으로 묵묵히 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영약, 메르쿠리우스이다.

그러한 고행과 시련을 통해 바리공주는 불사약을 얻게 되며, 그 시련 자체가 약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동양적인 지혜이며, 서양과 달리 바리공주에게 주어진 소명, 진정한 효(孝)에서 작용 된 불사약, 메르쿠리우스이다.

병든 부모를 살릴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자비심으로 허드렛일을 하며 오랜 시간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견딘 바리공주! 그리고 죽은 부모를 살리고 만신의 인위왕(人爲王)이 된 바리공주! 그 과정 자체는 신비한 최고의 물질, 메르쿠리우스를 만들고자 했던 연금술사들의 위대한 비의와 유사한 과정이다. 이 모두는 한국인의 심성 속에,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들의 투사과정으로, 무가 바리공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연금술사들이 말하는 물질들인 것이다.

그 바리공주에서 표현된 내용들, 버림받고 만신의 인위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바리공주를 만신의 인위왕, 메르쿠리우스로 만든 원질료는 자신을 버린 친부모에 대한 바리공주의 사랑, 자비이다. 융[98]에 의하면 “사랑은 신이 인격화 된 것”이라 하였듯이, 만신의 인위왕(人爲王), 바리공주는 자기(Self)에 입각하여 진정한 효심으로 자신을 버린 죽은 부모를 살린 ‘신성한 신의 자비’ 그 자체, 상처를 극복한, 상처 입은 치유자원형인 것이다.

나가는 말

무가 바리공주 논문을 긴 세월동안 마주하면서 나는 전체성에는 ‘건강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듦’이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병듦’ 속에서 삶을 배우게 된다.

98)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5) : 앞의 책, p104.

우울증으로 입 · 퇴원 후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꿈분석을 받고있는 60대 초 수도자의 삶의 이야기이다. 피분석자는 우울증을 앓기 전 수도자의 구성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그 어느 날, 피분석자는 사람과의 만남을 회피하고, 잠을 못 이루고,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자살충동이 일어나 입원하게 되었다. 활달하고 부지런했던 피분석자는 수도원의 공동생활, 규칙적인 시간들, 제복, 똑같은 기도 등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퇴원 후 항우울제를 복용하며 꿈분석이 시작되었고 고통, 죽음, 재생의 힘겨운 개성화 과정을 견디어 내고 있다. 피분석자는 '병듦'에 대한 깨달음을 분석 중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병듦'은 외부적으로는 환자이며, 사회적으로 뒤처지게 되고, 부족, 결함이고 고통이다. 그렇지만 내면으로는 나와의 투쟁이고, 어느 단계가 되면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힘,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되고 단단해지며 먼 시간으로 보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피분석자는 본당으로 복귀하여 수도자의 일상을 살아내며 깊은 내면의 기도 체험을 하고 있다. 개성화 과정의 길을 가면서 피분석자는 자신 안의 하찮은 돌이 보물임을, 그 돌이 치유의 힘을 불러일으킴을 깨달았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던 40대 남성의 꿈이다.

> 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갑자기 저 쪽에서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이 영화 속에서 나온 똑같은 옷, 예수님 복장을 하시고 내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셨다. 나는 예수님을 똑똑히 본다. 예수님은 천천히 내 앞에 다가오시며 나의 오른 손을 만지시더니 내 손을 잡으셨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손에 뭔가를 넌지시 전해주셨다. 난 예수님이 무얼 주시나 한다. 그것은 바로 Y(여성)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주었던 성모님의 기적의 패였다. 나는 깜짝 놀래면서 '예수님이 Y가 준 기적의 패를 주셨네'하며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갑자기 돌아서시며 천천히 내 앞에서 걸어가시며 사라지셨다.

꿈을 꾸기 전 실제로 이 남성은 천주교 신자인 Y에게 성모님의 기적의 패를 선물 받았다. 이 남성은 대체의학적 치료로 수지침을 3년 동안 시술받고 있었고, 그곳에서 폐농양을 앓던 수사님들과 접촉하며 주님 근처에 많이 다가가던 시기였다. 6개월 뒤 피분석자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

예수님! 융에 의하면[99] "그리스도는 원초적 인간으로서 평범한 인간을 능가하는 포괄적인 전체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상에 응축된 고통, 죽음, 부활의 의미는 의식을 초월하는 전체인격을 상징하며 이러한 인격을 자기(Self)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죽은 뒤에 부활하신 그 기적의 신비! 불치의 병을 앓으면서 대체의학적 치료에 기대어 생명의 힘을 붙잡고 싶었던 애절한 그 마음! 남성의 무의식은, 즉 자기원형은 상처받고, 그 상처가 치유된 진정한 치유자,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남성에게 기적의 패를 준다. 기적의 패에 담긴 신비한 치유의 힘! 이 영약을 얻기 위해 이 남성의 개별적인 삶 안에서는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견디며 고통, 죽음, 재생의 변환과정을 체험하면서 생명의 힘을 얻게 된다.

융에 의하면,[100] "고대 그리스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서의 사원 수면의 꿈에 관해서 보고된 것처럼, 현대인의 꿈이 꿈꾼 사람에게 직접 적절한 치유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꿈은 환자의 상황을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명한다고 하였다. 꿈의 보상적 기능, 보상적 태도 덕분에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수행된 꿈의 해석은 새로운 관점을 틔워주고, 두려워하던 정지 상태를 극복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하였다.

'병듦과 건강함', '건강함과 병듦',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과정, 그 대극이 하나임을 깨닫고 그 자연의 순환과정 속에 그 병듦을 극복하고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하는 내면의 힘, 즉 치유자원형을 체험할 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치유의 힘은 자신뿐 아니라 병든 다른 사람도 치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개별적이고, 천성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치유자 원형의 상(像)은 각 사람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병듦에서 벗어나 생명의 영약, 그 힘을 얻기 위해 사람의 개별적인 내면에서는 개성화 과정의 치유의 힘이 활성화 된다. 치유의 기능을 가진 치유자의 신적인 원형상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며 그 사람에게 고통, 죽음, 재생의 개성화 과정인 치유의 길을 체험하게 한다.

---

99)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7) : 앞의 책, p263.
100)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1) : 융기본저작집 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서울, p216.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 벌레등이 깨어나 새 봄을 맞이하는 경칩(驚蟄)이다. 그와 함께 노오란 복수초에 벌이 날아들었다. 얼마나 경이로운 현상인가! 죽은 듯이 보였던 자연에서 생명의 힘, 그 움직임이 일어나며 재생의 신비를 전해주고 있다. 한국인의 심성 안에 있는 무가 바리공주의 신화 속에는 긴 겨울 끝의 봄, 재생을 가르쳐주고 있다. 삶에서의 새로운 삶! 죽음 저 너머 뒤의 또 다른 세계!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바뀌어서 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든 영혼의 인도자이며, 자신의 상처를 극복한 진정한 의미의 상처 입은 치유자, 바리공주는 봄 ,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그 자연의 순리를 민중들이 어울리는 굿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오랜 시간동안 구전되어 오면서 치유를 체험하게 했다. 이렇게 무가 바리공주에 내재되어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징들은 한국인의 심성 속에서 느끼고 감동받으며 지금까지 살아 내려와, '병듦'에서 생의 리듬을 받아들이는 '건강함'으로 회복하게 하는 치유의 기능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바리공주는 융의 관점에서는 신격(Gottheit)의 원형적 상이다. 이 신격의 상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원형이다. 이 원형의 체험은 누미노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흔히 높은 정도로 종교적 경험의 지위에 상응할 만한 것이다.[101] 즉 바리공주는 우리 마음속의 치유의 원형상, 자비로운 내면의 신이다.

나는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무가 바리공주의 논문을 마무리 하려고 했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2019. 3. 8>

나는 아주 먼 길에서 와서 어딘가를(→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내 모습은 무슨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겠고 옷도 소박하기도, 오랜 세월 남루해지기도, 옷 같지도 않게 느껴졌다. 나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빈 손으로 걷고 있다. 그곳은 햇빛이 있는 듯, 없는 듯 나무도, 돌도 없고 붉은 황토 흙, 그 흙가루가 대기의 색깔과 비슷 아무도 없다. 난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다. 내 마음은 두려움 등, 그런 인간의 감정이 없다. 그냥 텅 빈 마음.

저 쪽에서 작은 동물들이(수십 마리) 떼를 지어내 반대편으로 지나간다. 난 그

101)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7) : 앞의 책, p91.

때서야 인간의 생각이 떠올랐다. 아! 여기서는 버스를 타도 돼네! 내가 버스를 쳐다보았더니 1~2 자리가 비어 있는 듯. 어디서 나타났는지 H교수가 활기찬 모습으로 그 버스를 세워 차를 탄다. 난 바라보다, 다시 걷는다. 나도 버스 탈 마음이 생겼다.…(중략)

내가 버스를 타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듯. 내려서 보니 우리 마을의 성당 앞! 난 "먼 길을 걸어 온 마지막 도착지가 집이였어!!" (중략)

도착한 곳은 우리 집과 성당이 있는 곳. 난 예전의 나!… 모습은 평범하고 소박.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좀 힘 있고, 건강해진 듯하다.

나는 먼 길, 즉 저승, 무의식에 다녀와 이승, 의식에 있는 집에 도착한다. 돌고 돌아 그 마지막 도착지는 내 안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집, 일상적으로 살아온 집, 나의 집에 귀착한다.

나는 무가 바리공주 논문을 마주하면서 구불구불한 길, 개성화 과정을 체험하면서 신이 거주하는 성당, 내가 거주하는 집으로 돌아왔다.

개성화 과정 그 자체는 치유이다. 꿈의 자아는 의식 저 너머의 세계를 다녀오며 치유의 힘을 체험했다.

그동안 바리공주 논문과 함께 일상을 살면서, 바리공주는 나에게 무의식의 창조성에 대한 확신과 개인의 다양한 전체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었으며, 자아를 넘어선 그 무엇, 전체정신인 자기중심적 태도(Self-Centered attitude)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종교적 심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인간의 무의식에는 신화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한 신화가 생성되는 원천이다. 그 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구들을 통해, 나의 꿈과 환상을 통해, 나는 신화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오래전의 그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더 신화를 산 사람들이지만, 현대인의 무의식 속에서도 그 신화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 바리공주에 담긴 이야기의 핵, 고통, 죽음 재생의 과정은 저절로 생성된 신화소이다. 즉 인간 본성의 고유한 전제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다.[102]

지금까지 바리공주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학자들이 바리공주를 연구했지만, 바리공주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나는 모른다. 왜

102)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7) : 융기본저작집 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 출판사, 서울, p191.

냐하면 인간의 위치에서 벗어나 만신의 인위왕(人爲王)이 된 운명적이고, 우주적인 바리공주는 전체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이 그 자신을 실현한 역사이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은 사건이 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인격 또한 그 무의식적인 여러 조건에 근거하여 발전하며 스스로를 전체로서 체험하게 된다."[103]

무가 바리공주 논문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나는 융이 자기(Self)의 체험을 말한 이 글을 가슴으로 만났다. 그의 용기가 놀랍고, 두렵게 느껴진다.

참 고 문 헌

강진옥(2010) : 「바리공주」의 불교제재 수용양상, 비교한국학, Vol.18, No.2.

김열규 역(2003a) : ≪그림형제 동화전집 I≫, 현대지성사. 고양.

_____ (2003b) : ≪그림형제 동화전집 II≫, 현대지성사. 고양.

_____ (2003c) :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서울.

김영민(2002) : 바리공주 무가에 나타난 영육관과 저승관, 문화연구, 7.

김영희(2015) :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0)1,2, (1).

김진영, 홍태한(1997) :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 1≫, 민속원, 서울.

김헌선(2015) : ≪한국 무조 신화 연구-비교 신화학의 자료적 가치와 의의≫, 민속원, 서울.

김환희(2005) : "<바리공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외국의 생명수 탐색담 및 니샨샤만과의 비교연구", ≪동화와 변역≫, 제10집.

국립국어연구원(2000) :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서울.

나카무라 하지메, 원영 역(2004) : ≪최초의 불교는 어떠했을까≫, 문예출판사, 서울.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이부영 역(2016) : ≪C. G. 융 우리시대 그의 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이부영, 이광자 옮김(2018) : ≪민담의 심리학적 해석≫, 한국융연구원, 서울.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역(2003) : ≪샤마니즘≫, 까치, 서울.

박상란(1994) : 여성영웅의 일대기, 그 두 가지 양상-바리공주와 정수정전을 중심으로-, 동원논집, Vol.7.

서대석(2002) :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서울.

신연우(2013) : 바리공주와 중국<妙善> 및 유사설화 비교의 관점, ≪한국민속학≫, 제

103) 아니엘라 야훼(이부영 역)(2012) : ≪C. 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p19.

27집.
아니엘라 야훼, 이부영 역(2012) : ≪C. 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아키바 다카시와 아카마츠 지죠, 최석영 해제(2008) : 한국 근대 민속 · 인류학 자료 대계 ≪조선 무속의 연구 상권≫, 민속원, 서울.
아서 코트렐(도서출판 까지 편집부 역)(2002) : ≪그림으로 보는 세계 신화 사전≫, 까치, 서울.
안상훈 엮음(2003) : ≪세계민담전집2 러시아편≫, 황금가지, 서울.
이나미(2010) : 융,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서울.
이부영(1970) : "사령의 무속적 치유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연구-특히 분석적 정신요법과 관련하여-", ≪최신의학≫, Vol. 13, No. 1.
_____ (1986) : "皇帝內徑에서 본 醫師-患者關係", ≪서울의대정신의학≫, 제11권, 제1호.
_____ (2001) : ≪남성속의 여성, 여성속의 남성 아니마와 아니무스≫, 한길사, 파주.
_____ (2002) : ≪자기와 자기실현-하나의 경지, 하나가 되는 길≫, 한길사, 파주.
_____ (2011a) : ≪분석심리학 C. G. 융의 인간 심성론≫, 일조각.
_____ (2011b) :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분석심리학적 접근-≫, 집문당, 서울.
_____ (2012a) : ≪노자와 융『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한길사, 파주.
_____ (2012b) :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파주.
_____ (2018) : "자비는 정의를 이긴다", ≪길≫, 19(2), 한국융연구원, 서울.
이유경(2010) : ≪한국 민담의 여성상≫,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이정재(2006) : 실크로드 신화 <애견이여 춤춰라>와 한국 무가 <바리공주>의 비교연구, ≪한국무속학≫, 43.
임석재(1993) : 한국구전설화 제7권, 전라북도1, 평민사, 서울.
정재서(2005) :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서울.
주종연(1999) : ≪한독민담연구≫, 집문당, 서울.
최인학, 엄용희 편저(2003) : ≪옛날이야기꾸러미3-한국민담유형집성 : 보통옛날이야기(하)≫, 집문당, 서울.
칼 구스타프 융, 이부영 외 역(2013) :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Jung CG(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번역위원회 역)(2001) : 융기본저작집 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서울.
_____ (2003) : 융기본저작집 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_____ (2004a) : 융기본저작집 3권 ≪인격과 전이≫, 솔출판사, 서울.
_____ (2007) : 융기본저작집 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서울.
_____ (2002) : 융기본저작집 5권 ≪꿈에 나타난 개성화 과정의 상징≫, 솔출판사, 서울.
_____ (2004b) : 융기본저작집 6권 ≪연금술에서 본 구원의 관념≫, 솔출판사, 서울.

_____ (2005) : 융기본저작집 7권, ≪상징과 리비도≫, 솔출판사, 서울.
_____ (2006) : 융기본저작집 8권, ≪영웅과 어머니 원형≫, 솔출판사, 서울.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1992) : ≪한국문화상징사전1≫, 동아출판사, 서울.
Ashliman DL(1987) : *A Guide to Folktales In the English Language-Based on the Aarme -Thompson Classification System-* Greenwood press, Westport, Connecticut.
von Franz ML(1974) : *Number and Tim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Shim-Sŏng Yŏn-Gu 2021, 36 : 1

〈ABSTRACT〉

Psychological Symbolism of the Shamanic Song of Princess Bari :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Young Hee Kim[**]

Princess Bari, the seventh daughter of the King and Queen, is abandoned at birth. She one day embarks on a solitary journey into the underworld to seek the antidote she needs to save her ailing father. The shamanic myth then depicts terrible ordeals, after which the Princess manages to obtain the elixir of life to bring her parents back to life, leading to her deification as the Queen of all shamans.

The life of Princess Bari as the ancestor of shamans incorporates the necessary rite of passage to become a shaman, persevering through all manner of trials and tribulations until death and then being reborn. Princess Bari's story of deification as the goddess of shamans constitutes the archetype or the primitive image of the collective unconscious, the mytheme.

From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Princess Bari, who became the Queen of shamans after undergoing a process of pain, death, and then rebirth demonstrates a facet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evident in heroic mythology.

Princess Bari not only cured her parents of disease but also brought them back to life. What enabled her to obtain the elixir to resurrect her parents was her love and compassion for them based on self-sacrifice, enduring all the trivial and repetitive undertakings of everyday life. She viewed the world and behaved from the perspective of a broader Self.

Making herself a powerful healer through the ordeals in the underworld, Princess Bari is the psychopomp as well as the healer archetype. The sacred power of healing that goes beyond the Princess' sufferings represents the Self Archetype inherent in the mentality of the Koreans, in other words, a symbol-

ic power that indicates the divine representation of a healer.

KEY WORDS : Princess Bari · The individuation process · The queen of all shamans · Self archetype · Healer archetype.

[**] *Kyonggi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Ed. D*